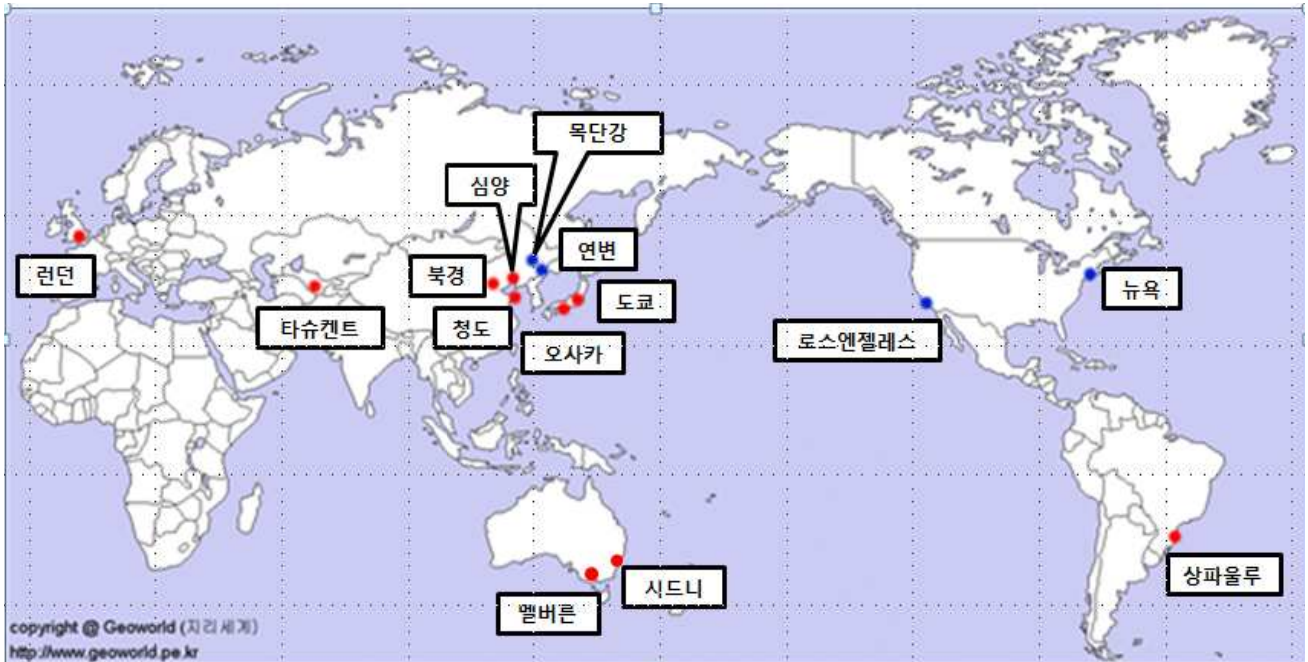


# 2013 코리아타운과 축제 전자문화지도

## 국제학술회의 [프로그램 및 자료집]



2013년 11월 20일(수) 14:40-18:00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118호실

주최 : 재외한인학회 ·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주관 :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후원 : 재외동포재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인사 말씀 ◆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역인 에스닉타운이 되려면, 해당 민족의 인구집중과 민족문화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문화와 사회활동의 중심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LA 올림픽가 주변, 뉴욕의 플러싱, 오사카의 이쿠노, 도쿄의 신오쿠보, 중국 동북의 주요도시의 조선족거리들은 에스닉타운(ethnic town)의 요건을 갖춘 코리아타운입니다.(물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코리아타운') 재외한인/동포의 현실과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를 “삶의 한국학”의 현장인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것입니다.

재외한인학회와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코리아타운과 축제, 전자문화지도】 국제학술회의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계의 한민족> 강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콘텐츠편찬실 용역인 <조선족문화전자대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어진 성과를 일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후원기관으로 했습니다.

“삶의 한국학”의 현장인 코리아타운마다 음력설과 추석, 혹은 적절한 시기에 거주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의 경우, 한국사회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단오뿐만 아니라 유두(음력6월15일)와 백중(음력7월15일)에 조선족문화관이 주관하는 대동축제가 자리잡아가 가고 있는데, 이번에 다루는 코리아타운의 축제는 미국과 중국 동북 지역의 사례입니다.

디지털콘텐츠의 하나인 전자문화지도(電子文化地圖)는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구성된 디지털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북의 조선족사회와 전자문화지도」는 시론일 뿐이지만, 앞으로 코리아타운의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자원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재외한인학회 회장 이진영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영학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센터장 임영상

# Introductory Remark

Qualifications of ethnic towns consist of concentrated ethnic population, commercial centers that sell ethnic cultural products as well as centers for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In that sense, Olympic Blvd. in Los Angeles, Flushing New York, Ikuno Osaka, Shin-Okubo Tokyo, and Chosunjok streets in major cities of Northern China's have requirements needed to be Korea town (Of course,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s itself a 'Korea Town'). This is the right time to examine overseas Koreans' today and tomorrow centering on "Korea town" as these sites represent "the life of Korean studies".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 Town and Festivals, Digital Cultural Map>, hosted by Global Culture & Contents Research Center and organized jointly by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and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s not a large scale conference. This conference is sponsored by Overseas Korean Foundation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s the conference includes work from <Ethnic Koreans of the World> course that is funded by Global Culture & Contents Research Center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support of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s well as <Chosunjok Digital Culture Encyclopedia> project that is sponsor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ulture Content Publisher.

As site of "Life of Korea Studies", each Korea Town hosts Lunar New Year and Chuseok as well as cultural Festivals to celebrate with the locals. For instance, in Northeast China, not only is Dan-O(which is also being celebrated in Korea) being celebrated, Chosunjok Cultural Center also hosts Yu-du(Lunar June 15th) and Back-Jong (Lunar July 15). Our conference will examine Korean cultural festivals in America and Northeast China regions.

Digital cultural map as one of digital contents is being developed as a platform that could organically use and combine digital resources. One of the presentations <Chosunjok community in Northeast China and digital culture map> is in an essay form but it will eventually be able to include Festivals in Korea town and other variety of cultural resources. Thank you.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President Jin Young Lee**  
**HUFS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Director Young Hak Lee**  
**HUFS Global Culture & Contents Research Center, Director Young Sang Yim**

## ◆ 축 사 ◆

2013 코리아타운, 축제, 전자문화지도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현지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류사회와 소통, 협력해 온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50여년의 이주역사를 가진 우리 재외동포사회는 숭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정체성 유지에 성공한 몇 안 되는 모범적 민족 집단입니다. 또한 21세기 글로벌사회를 맞아 놀라운 네트워크 역량을 발휘하여 모국과 거주국 간의 호혜발전을 물론 심리적 거리를 단축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를 맞아 글로벌 한민족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국가발전과 민족융성의 디딤돌로 삼고자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지역별·직능별 네트워크 심화 확대, 그리고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글학교, 한국역사·문화 교육 지원 확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가 국력의 외연으로, 국가경쟁력의 첨병으로, 공공외교의 후원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있으며, 모국과 거주국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코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전 세계 코리아타운과 축제를 재조명함으로써 동포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대회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임영상 교수님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원,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그리고 재외한인학회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1월 20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조 규 형**



## ◆ 프로그램 PROGRAM ◆

시간	내 용
14:30~ 14:50	등 록
14:50	개회사 : 임영상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센터장) 축 사 :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15:00	내빈소개 및 사진촬영
15:10 ~18:20	사회 Moderator : 임영상 Young Sang Yim (한국외대 HUFS)
	<b>「연변전자문화지도」 시연(10분)</b>
	제1부 중국의 코리아타운과 축제
	[0] 동북의 조선족사회와 전자문화지도   임영상 (한국외대)-김동훈 (한국문화정보센터)
	1. 중국 조선족 두만강문화관광축제   김아인 (중국 도문시)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Tumen River International Arts Festival China   EYINE KIM (Tumen City)
	2. 목단강조선족사회와 민족문화축제   김용선 (한중법률신문) Mudangang Chosunjok Community and Festival   Longshan Jin (Korean Chinese Law Newspaper)
	<b>다과와 함께 휴식 (10분)</b>
	제2부 미국의 코리아타운과 축제
	3. 뉴욕 코리아타운과 축제   주동완 (코리안리서치센터) New York Korea Town and Festival   Dong Wan Joo (Korean Research Center)
	4.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과 축제   김진영 (한국외대) Los Angeles Korea Town and Festival   Jin Young Kim (HUFS)
<b>다과와 함께 휴식 (10분)</b>	
지정토론	
중국: 정부매 Boo Mae Jung(한국학중앙연구원 Academy of Korean Studies) 이영미 Young Mee Lee(여행레저신문 Travel News)	
미국: 장안리 Ahnlee Jang (한국외대 HUFS) 배진숙 Jin Sook Bae (브라운대학 Brown Univ.)	
18:30	<b>저녁식사 [해송](외대 후문에서 5분)</b>

- 목 차 -

0. 중국 조선족사회와 전자문화지도 / 임영상(한국외대)·김동훈(한국문화정보센터) ……	1
1. 중국 조선족 두만강문화관광축제 / 김아인(중국 도문시) ……	17
2. 목단강 조선족사회와 민족문화축제 / 김용선(한중법률신문) ……	38
3. 뉴욕 코리아타운과 축제 / 주동완(코리안리서치센터) ……	39
4.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과 축제 / 김진영(한국외대) ……	68

[토 론]

1. 중국 조선족사회와 축제/ 이영미·정부매 ……	70
2. 미국의 코리아타운과 축제/ 배진숙·장안리 ……	71

- 발표문 -

# 0. 동북의 조선족사회와 전자문화지도\*

임영상(한국외대)-김동훈(한국문화정보센터)

- I. 머리말
- II. 동북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전자문화지도
- III. 연변조선족사회 전자문화지도의 개발과 샘플
- IV. 맺음말

## I. 머리말

2011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의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대변영을 추진할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하 ‘문화체제개혁 심화 결정’로 약칭) 발표는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요구와 기대를 드러낸 역사적인 문건이 되었다. 제1저자는 문화체제개혁 심화 결정 발표 이후 동북 조선족사회, 특히 조선족문화관이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는데 한국사회와 협력할 부분이 있음을 논문으로 만든 바 있다.(임영상, 2012: 167-206)

한국이나 중국이나 문화를 넘어 문화콘텐츠 개발의 시대를 맞아 당장 문화상품으로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대중의 문화향유와 함께 문화상품의 기본 재료를 생성해야 하는 문화사업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동북 조선족사회, 특히 “두만강문화”로 연변을 넘어 동북 조선족사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두만강변의 용정과 도문 등의 연변조선족사회의 조선족문화를 디지털콘텐츠로 기획하고 나아가 제작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관광문화산업 분야에도 ‘사회 전반에 IT가 활용, 재생산되어 인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스마트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sup>1)</sup>

해외한인사회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인구유출 및 문화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CIS의 고려인 사회와 동북의 조선족사회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디지털콘텐츠화 작업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제1저자는 이를 논문과 강연에서 제기한 바 있고,<sup>2)</sup> 제2저자는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연변조선족사회의 전자문화지도 제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sup>3)</sup> 저자들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여러 차례 동북의 조선족사회를 답사하면서 준비했고, 2012년 8월 두만강문화관광축제 기간에도 「전자문화지도와 조선족문화자원: 두만강문화지도의 비전」 주제로 발표한 바도 있다.<sup>4)</sup> 전자문화지도가 문화콘텐츠개발의 시대에 동북 조선족사회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 이 글은 2013년 8월 5-6일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중국조선민족사학회 행사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김흥남(2012), 「스마트시대의 기술혁신을 위한 R&D 전략」, 『한국통신학회논문집』 30(1), 33-38.  
2) 논문: ① 「동북의 조선족문화관과 콘텐츠 기획」, 『역사문화연구』 44, 2012. ② 「재외한인사회와 디지털콘텐츠」, 『재외한인연구』 23, 2012. ③ 「우즈베키스탄 한민족박물관과 디지털콘텐츠화」, 『전략지역 심층연구논문집 1 중앙아시아: 정치·문화』, 2010; **주제발표**: ① 「해외한인문화와 디지털콘텐츠(전자문화지도) (재외동포포럼 22, 2010.12. ② 김동훈-임영상, 「우즈베키스탄 한민족박물관과 디지털콘텐츠화」 2012.8. ③ 「코리아타운과 전자문화지도」 (컨스칼리지 재외한인사회연구소 세미나 20, 2013.7.  
3) 김동훈(2012), 「중국 조선족전자문화지도 제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특히 제2저자는 직접 행사에 참여하여 PPT로 발표했다.

## II. 동북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전자문화지도<sup>5)</sup>

2008년 4월 발족한 중국조선민족사학회는 청도조선족과학문화인협회와 공동으로 제13회 중국조선족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혁개방 30주년,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발전' 주제 아래, 대회장인 황유복 교수는 대회 주제와 같은 「개혁개방 30주년,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발전」 논문에서 “‘조선족 문화령토’로 인정되던 조선족마을의 공동화와 해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조선민족학교의 폐쇄, 민족 정체성의 혼돈,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존망과 직결되어있는 전통적 가치관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후, “친환경적인 창의적인 하이테크 산업이나 문화산업이 앞으로의 진로이다”라고 제언했다.(황유복, 2011: 1-19)

디지털콘텐츠의 하나인 전자문화지도(電子文化地圖)는 '전자'와 '문화' 그리고 '지도'라는 복합어로 일종의 지도에 전자적인 속성의 매체와 결합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적 매체의 속성과 생활양식의 총체적인 의미인 문화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정보자원의 "시·공간적 상호 연계성"을 "전자지도"라는 시각적 표현 방법을 통해 드러내는 방법이다. 전자문화지도는 일종의 지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지도는 상대적인 위치 정보와 거리정보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매체이다. 지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근래에 이르러 지도를 이용해 지리 정보, 위치정보뿐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산업적,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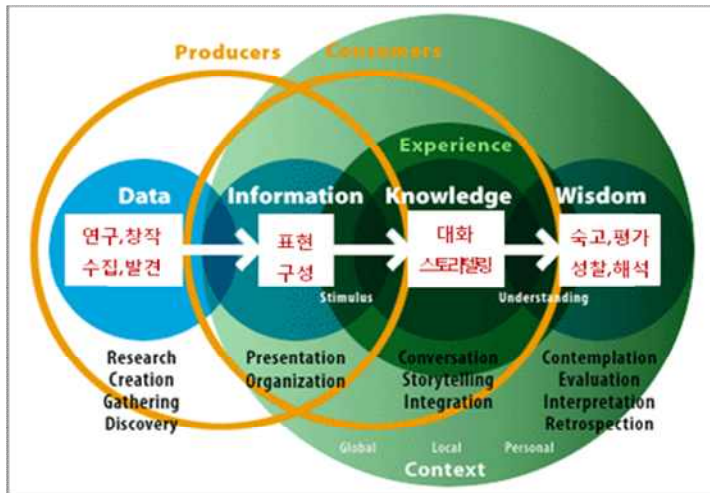
전자문화지도는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구성된 디지털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문화를 이해하고, 다중 시점으로 표현 가능하며,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한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요소를 읽어 내는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를 이해하는 프레임으로 많은 기업과 연구 기관 및 박물관 등에서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화지도에서 시·공간을 중심으로 동일한 정보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표현하면 새로운 지식정보로 개발 가능하다. [표1]은 전자지도의 일종인 GIS(지리정보시스템)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전자문화지도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GIS(지리정보시스템)과 전자문화지도 비교

GIS 지리정보 시스템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수치, 데이터로서의 지도	콘텐츠로서의 지도(서비스개념)
지형도	주제도
지도제공자 중심	지도사용자 중심
전자지도-물리적 정보 데이터단계	전자문화지도-인문사회정보 지식정보단계

개혁개방이래 격심한 변화를 겪어온 동북 조선족사회에 대한 기록의 한 방안인 전자문화지도는 전자문화지도를 구성하는 문화자원을 지식정보서비스로 활용하는데 유용하다. 그런데 전자문화지도에서 문화자원의 지식정보서비스로의 활용은 서구의 'DIKW(Data, Information, Knowledge, Wisdom)' 모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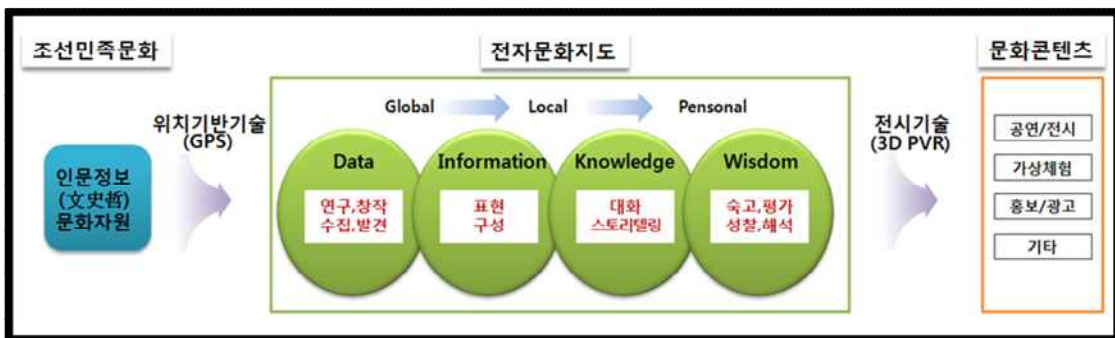
5) 제2장의 전자문화지도 관련 부분은 김동훈-임영상(2012)의 「전자문화지도와 조선족문화자원: 두만강 문화지도의 비전」에서 발췌한 것임.



[그림 1] 나단쉐드로프의 데이터-정보-지식-지혜의 발전과정

[그림 1]은 경험디자인 학자인 나단쉐드로프의 데이터-정보-지식-지혜의 발전과정이다.(나단쉐드로프, 2004: 34) 이는 전자문화지도가 지식정보로 활용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동북의 조선족 문화자원의 연구와 발견, 수집은 데이터의 단계이고, 이를 표현하고 구성(조직)하는 것은 전자지도(電子地圖)에 문화자원을 담는 단계이며, 탑재되고, 분절화된 문화자원끼리 다양한 레이어를 통해 상호 소통되고, 연결되어 새로운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정보는 전자문화지도(電子文化地圖)단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단계는 이러한 거시적인(global)문화자원이 통합과 성찰, 해석의 단계를 거쳐 미시적인(personal)지식으로 활용될 때 지혜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문화자원의 글로컬(global)화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현지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이 세계적인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의미하며, 그 단계는 바로 지식정보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자원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문화의 기록과 보존에 있다. 그리고 이차적 중요성은 문화자원의 활용에 있다고 하겠다. 전자문화지도 제작의 기반기술이라 할 수 있는 위치기반기술(GPS)과 전시 및 표현 기술인 3D PVR을 통한 문화자원의 활용 방안을 통해 동북 조선족사회의 전자문화지도 기획과 제작과정을 살펴본다.



[그림 2] 전자문화지도와 문화자원활용 단계

전자문화지도와 문화자원의 활용은 총 3단계로 나뉘어진다. 첫째, 조선족문화자원연구단계, 둘째, 전자문화지도제작단계, 셋째, 문화콘텐츠 생성 단계이다. 첫째 단계는 이미 동북의 민족언론과 조선족사회 연구자들에 의해 축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자문화지도 단계인 GPS정보기술과 전자문화지도에서 문화콘텐츠로 활용되는 단계를 연결해주는 정보기술인

3D-PVR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문화자원단계인 인문학과 그 이후 단계인 정보학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 단계마다 엮여있다. 문화자원을 연구할 때에도 정보기술로 표현을 염두해 두고 수집, 선별해야 하며, 전자문화지도 단계에서도 인문학적 숙고와 평가,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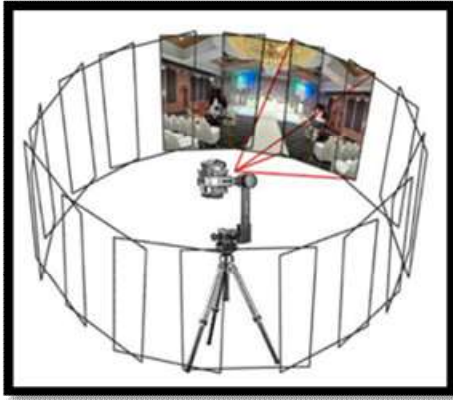
전자문화지도는 문화자원과 상호 연동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시간과 공간은 문화자원을 이해하는데 많은 맥락(context)를 제공한다. 특히 문화자원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무형의 자원일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진의 경우 시간, 공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중한 사진이라 하여도 관람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힘든 특성을 가진다. 즉 카메라는 그 앞에 존재하는 것만을 프레임 안에 담기 때문에 찍혀진 모든 것은 '문맥에서 벗어나' 있다.(필립퍼키스, 2007: 100)

2008년 4월 연길을 방문한 제1저자는 신화서점에서 연변조선족의 문화중심, 용정을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이유로 용정문화지도 제작에 유용한 김재권의 소책자들<sup>6)</sup>과 룡정시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편인 문화총서 『일송정』<sup>7)</sup> 잡지를 구입, 열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김재권의 『유서깊은 해란강반』, 『유서깊은 명동촌』 등의 경우, 다양한 스토리가 내제된 시간공간의 맥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조선족의 소중한 역사적 사진과 스토리, 동영상 파일이 시간 및 공간의 맥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식정보가 아닌 데이터 또는 정보의 단계로만 머물게 된다. 하지만 각각의 사진에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담게 되면 시간 축, 공간 축으로 사진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지식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전자문화지도에 문화자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기록할 수 있는 문화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sup>8)</sup> 좌표 점은 전지구적인 시공간 좌표 점으로 유일무이하며 문화자원을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쉽게 사라지는 역사문화나 위치변동이 심한 이주민에게 유용한 문화기술인 것이다. 길찾기(wayfinding)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행위이다. 음식물의 위치와 집으로 회귀 및 위험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는 것은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에 과거 수렵채집민, 유목민의 가졌던 길찾기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온라인의 정보의 과잉문제와 동일하게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선 모든 것이 정보화되고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정보가 밀집한 디지털환경에서 길찾기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GPS는 위치 인식과 더불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기술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 활용되는 GPS의 위치인식과 동일하게 작은 지역단위에 RFID<sup>9)</sup> 기술이 있다.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대형마트에서 유용한 기술로 대형 테마파크에서는 미아방지용 위치인식기술과 대형마트에선 다양한 물품의 이력사항과 가격 및 품질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위치인식 기반의 정보기술은 유비쿼터스 환경이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반 기술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콘텐츠 생성의 단계인 3D PVR의 활용방안이다. 3D PVR((Photographic Virtual Reality)은 일종의 사진으로 만든 3차원가상현실로 파노라마기법 중 하나이다. 사용자가

6) 2001년 연변인민출판사가 간행한 룡정시관광지점안내 소책자로 백민성(김재권의 필명)이 편집한 것이다: ① 『유서깊은 해란강반』, ② 『유서깊은 명동촌』, ③ 『유서깊은 두만강반』, ④ 『유서깊은 구수하반』  
 7) 2001년 연변교육출판사에서 간행하다 연변인민출판사로 간행처가 바뀐 잡지 『일송정』은 2008년 제8를 간행하고 중단되었다. 그러나 제1저자는 용정이야기와 관련, 『일송정』의 가치를 인식하여 2009년 8월 연길에서 개최된 중국조선민족사학회에서 「용정이야기와 『일송정』」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8) 지피에스(GPS)라고도 한다. 위치 정보는 GPS 수신기로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정확한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3개의 각각 다른 거리를 삼각 방법에 따라서 현 위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9)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란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림 3] 구형 파노라마제작방법

직접 마우스로 상,하,좌,우,앞,뒤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는 사진이다. 3D PVR은 총 3단계를 나누어 작업을 한다. 첫 번째는 촬영단계로 일반 카메라도 가능하지만 편의상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며, 노달 포인트(nodal point: 광선의 중심점)를 축으로 하여 상,하,좌,우로 정확한 각도마다 카메라를 돌려주는 장비(rotator와 각도기)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모든 방향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겹치게 촬영한다. 두 번째는 스티칭(Stitching) 단계로 여러 장의 사진을 다시 Stitching Tool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로 한 장의 Sphere(원형) 또는 Cube(육면체) 이미지로 변환시킨다. 세 번째는 뷰어(Viewer)단계로 View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이나 웹상에서 이 한 장의 이

미지를 3차원적인 영상으로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디지털 영상 단계이다.

3D PVR은 일종의 전시기술이며 문화를 전시 및 표현하는 문화기술로 단순한 문화자원의 전시뿐만 아니라 콘텐츠화 및 산업화를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가능하다. 우선 양질의 조선족 문화자원을 활용한 3D PVR 문화기술은 먼저 전시에 많이 활용될 수 있다. 스토리텔링, 전시 기술, 다른 미디어와 융합하여 3D PVR을 파생콘텐츠로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D PVR 가상현실은 실제의 시공간지점을 이동하지 못하지만 그와 유사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① 가상현실은 박물관, 연구소, 문화 관련 산업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자원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자원이나 소멸되기 쉬운 문화자원 전시에 매우 유용하다. ② 개인에게 생생한 체험을 제공한다. 사용자 스스로 3D로 구현된 문화



[그림 4] 3D PVR로 구현한 도문시 중-조 통상구

자원을 탐험하거나, 이동, 민속관련 음악을 듣거나, 특정 지점을 확대, 축소 및 관련 정보를 받아 보거나, 작동을 시킬 수 있다. 한 블로그 작성자는 3D PVR로 구현한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제작하고 있는 로드뷰(RoadView)<sup>10)</sup>에서 20년 전의 자신이 어렸을 적 살았던 집과 소학교, 동네길 등을 가상현실로 체험 후 추억에 잠겨 남겨진 글을 통해 단순

한 정보와 문화기술이 한 개인에게 지식 제공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1)</sup> ③ 가상현실임에도 불구하고 3DPVR은 사진이미지로 구현되어 비용이 적게 들고 형식 변환을 통해 웹과 연결하여 웹 서비스로도 활용 가능하다. 웹과 연결되어 사용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사진이미지로 구현된 문화자원을 쉽게 체험할 수 있어 글로벌화된 콘텐츠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④ 경제적

10) 다음 로드뷰 서비스  
[http://local.daum.net/map/index.jsp?cx=494917&cy=1128521&level=6&panoid=107438&pan=348.6&tilt=-8.6&map\\_attribute=ROADVIEW&map\\_type=TYPE\\_SKYVIEW&map\\_hybrid=true](http://local.daum.net/map/index.jsp?cx=494917&cy=1128521&level=6&panoid=107438&pan=348.6&tilt=-8.6&map_attribute=ROADVIEW&map_type=TYPE_SKYVIEW&map_hybrid=true)

11) 3D PVR을 체험한 블로그 주소: <http://boney0000.blogspot.com/2009/04/blog-post.html>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GPS좌표 정보)으로 한 문자광고 및 문화자원 소개와 모바일 기기를 통한 관제탑 부근의 이벤트와 홍보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3D PVR구축된 문화자원의 경우 웹과 연동하여 해당 지역의 상점이나 식당, 관광명소를 링크를 통해 홍보 및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문화지도에서 지혜와 지식의 단계는 거시적인(global)차원에서 미시적인(personal)단계로의 활용을 의미한다. 즉 보편성을 가진 문화자원이 개인화된 지식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조선족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발견, 수집하여 전자문화지도의 플랫폼을 통해 지식정보화를 이루고, 이러한 지식정보를 개인화된 지식정보로 제시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가상현실(온라인)로 문화를 체험하고 느낀데 이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이 동북의 조선족사회에도 목전에 이르렀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특히 여름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북 조선족사회를 방문하다. 물론 대부분은 백두산(장백산) 관광이 중심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변조선족사회의 문화중심 용정, 1주일 이상 개최하는 중국두만강문화관광축제, 그리고 중국·북한·러시아 3국 국경의 변경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훈춘 등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아 진 것이다.

제1저자는 연변자치주에서는 올림픽보다 더 중요했던 2008 제13회 중국북방관광교역회가 끝난 후, 용정시가 북한 평양관광총국과 료녕성 관광국, 심양시중국국제여행사 등 여러 관광업체 대표를 초청하여 상호 관광자원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과 실무상담을 하고 합작협약도 체결한 후, 『연변일보』 2008-7-28) 2007년 5월 연길시가 행한 <연길시하루관광>을 연상하게 하는 "내 고향사랑" 1일 관광코스를 개통한 것에 주목했다.

비암산의 일송정, 용정지명기원지 우물, 민속박물관, 대성중학교혁명투쟁관, 운동주생가를 함께 묶은 민족민속문화관광코스, 1928년 연변의 첫 중국공산당당지부인 룡정촌지부탄생옛터, 3.13반일외사릉, 일본침략자의 거금 15만원 탈취유적지, 연변초대주장 주덕해동지의 옛집, 일본간도영사관 지하감옥 등을 한데 연결한 홍색관광코스, 삼합통상구, 오지암, 한왕산, 천불지산, 장수발자국을 함께 연결한 이색적인 변경산천풍광관광코스, 국가급자연보호구인 천불지산 송이버섯자연보호구, 만무과원, 해란강스키장을 연결시킨 생태관광코스였다. 『연변일보』 2008-8-21) 용정시가 개발한 코스 가운데 민족민속문화관광코스과 홍색관광코스는 연변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용정만이 개발할 수 있는 용정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실제로 홍색관광코스에 들어 있는 '15만원 탈취사건'은 2008년 블록버스터(Blockbuster, 대히트작)로 '만주웨스턴'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놈놈놈』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다. 『동아일보』 (2008-8-5))

### Ⅲ. 연변조선족사회 전자문화지도의 개발과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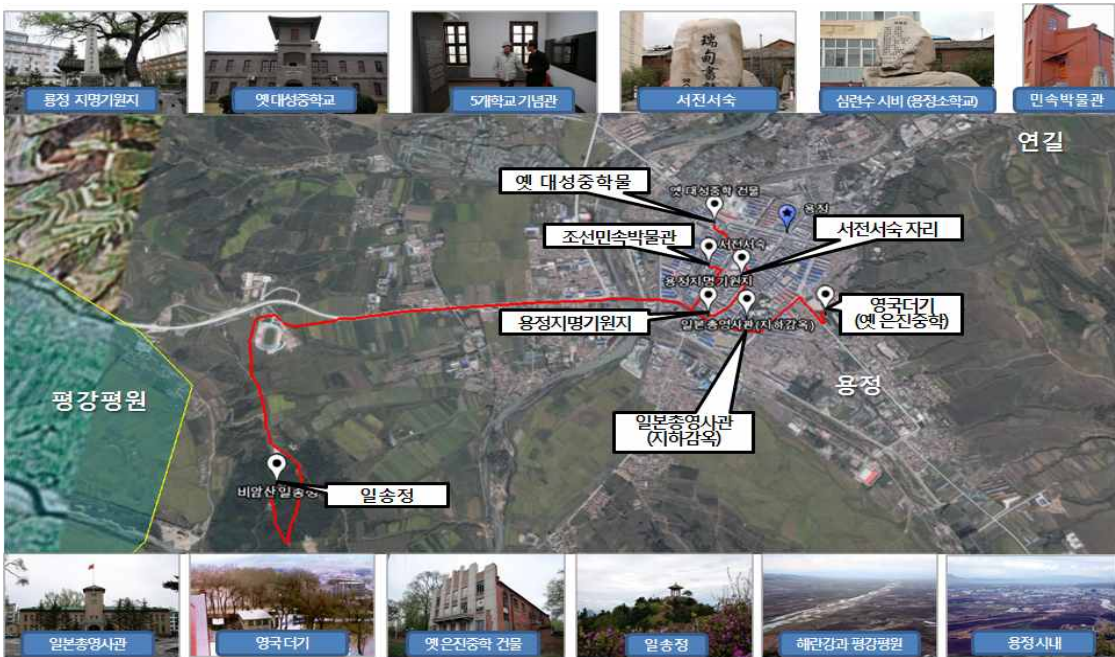
2008년 10월 제1저자는, 짧은 연변의 경험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연변을 포함한 만주의 조선족사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을 고려한 1박2일 여정의 용정역사문화관광에 유용한 전자문화지도의 초보적인 수준인 '용정문화루트'를 개발한 바 있다.<sup>12)</sup> [그림 5]는 2008년 제1저자가 제2저자의 기술지원으로 기획, 개발한 용정문화루트의 제1일 코스이다. **조선족이주와 명동촌** 주제로 연길에서 출발하여 먼저 북한 회령이 보이는 삼합진까지 간 후 명동촌을 거쳐 용정시내로 들어오는 코스이다. [그림 6] 제2일 코스는 **조선족의 문화중심 용정시내와 일송정**

12) 실제로 KMZ(keyhole markup language zipped) 파일로 올려놓았는데,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

주제로 전일에 용정에서 숙박한 후, 용정시내와 비암산 일송정을 둘러보는 내용이다.



[그림 5] 제1일 코스 : (연길→삼합→(오랑개령)→명동촌→장재촌→승지촌→용정시내[미식거리 한글독서사]



[그림 6] 제2일 코스 : 용정지명기원지→용정중학(옛 대성중학)→용정실험소학교(서전서숙)→민속박물관→일본총영사관→영국더기(은진중학)→해란강→비암산 일송정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많게는 4회까지 연변을 방문한 저자들은 2010년 제1회 행사에 이어 2011년 제2회 두만강문화관광축제를 체험하면서, 기존의 코스 외에 두만강변의 용정(광소촌 어곡전마을)과 도문의 월청진(백룡촌 백년부락), 그리고 새롭게 연변의 아이콘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두만강문화관광축제가 열리는 두만강광장(특히 중국조선족비물질문화전시관) 등은, 아무리 짧은 여정이지만, 반드시 한국의 여행객들이 방문할 곳이라고 생각했다.<sup>13)</sup> 한편, 2011년 한국외대 연구팀의 한국과 중국 연구자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족문화전자대전 사업을 수행하면서, 용정을 비롯한 도문과 훈춘 등 두만강 지역의 조선족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에 따른 51개의 [기획항목] 주제를 각기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작성했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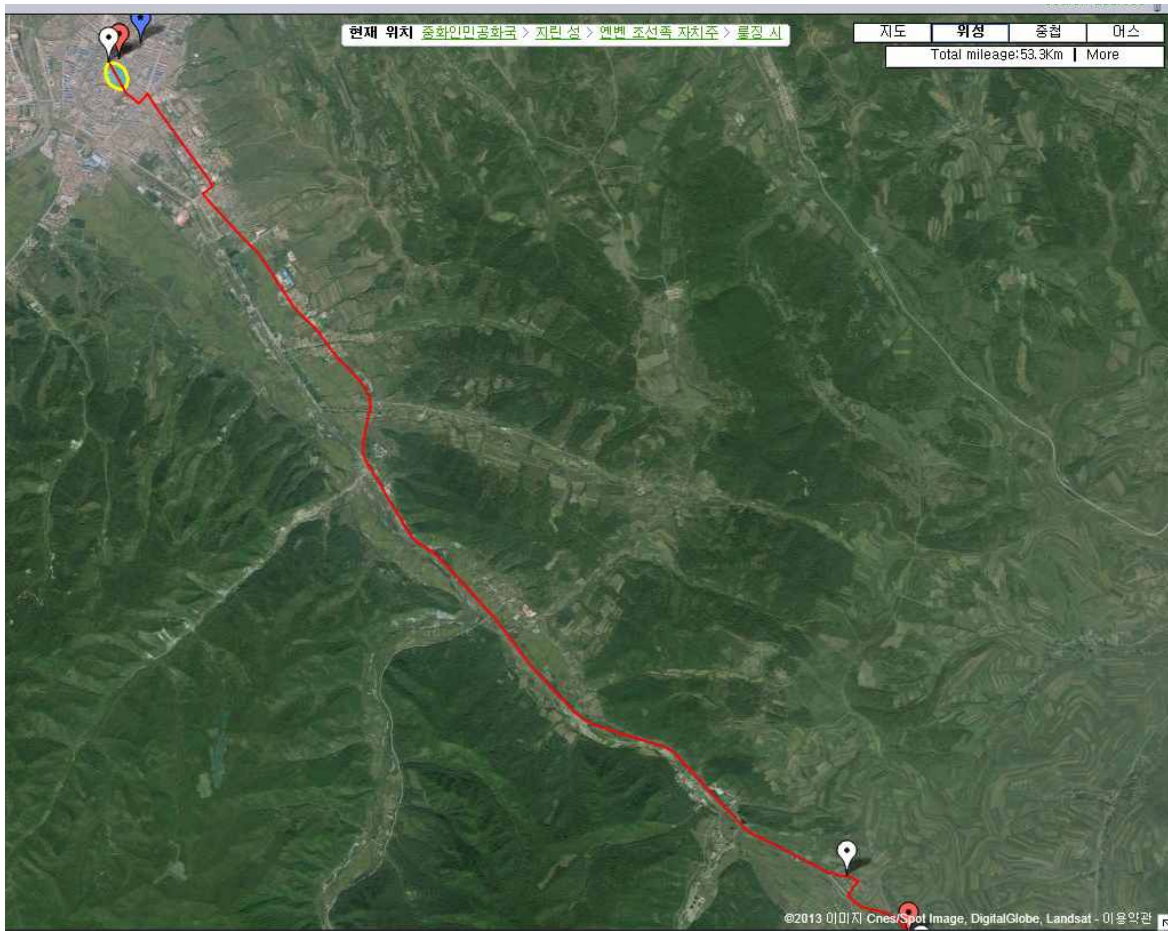
연변문화지도, 【중국 두만강 디지털문화지도】 샘플<sup>15)</sup>은 제2저자가 주도하여 제작했다. 2008년 제1저자가 개발한 ‘용정 1일코스’와 ‘용정 2일코스’ 외에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용역을 수행하면서 생산한 자료를 ‘도문 관광 코스’로 추가한 것이다. 지도는 기본적으로 GPS와 PVR 자료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이루는 연구논저와 신문기사, 인터뷰자료와 참여관찰 내용을 활용했다. [그림 7]은 초기 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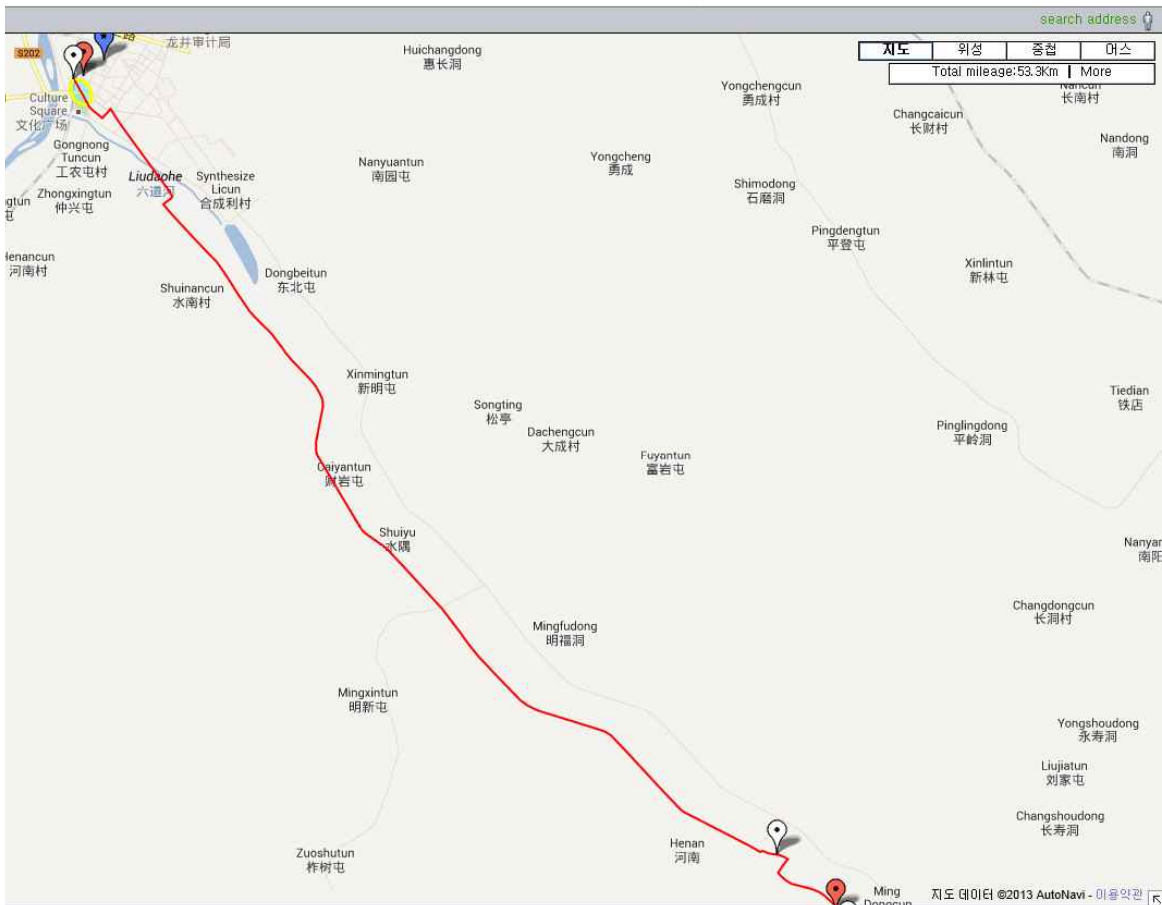
[그림 7] 【중국 두만강 디지털문화지도】 초기 화면

- 13) 물론 중국조선족 통소의 고향 밀강촌, 북한 쪽 두만강이 휘감고 있는 회룡봉촌, 중국, 북한, 러시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방촌 등 훈춘시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용 부분에서는 유일한, 중국조선족의 농악무의 고장 왕청현, 상류 두만강지역인 화룡시, 안도현 등도 포함해야 연변조선족사회의 두만강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향후 추가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 14) 한국외대 연구팀이 주도하여 한국과 중국 연구자들이 작성한 51개의 기획항목은 2011~2015년에 걸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체 사업이 종결된 후인 2016년 이후에 공식 서비스될 예정이며, 51개 항목 자체도 재검토 대상일 뿐이다.
- 15) 샘플 사이트는 2013년 8월5~6일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중국조선민족사학회 발표를 위해 중앙민족대 한국문화연구소(정희숙)와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임영상-김동훈)가 공동 기획, 제작한 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 초기화면을 기본으로 설계했다. 향후 본격적인 제작이 진행될 경우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그림 7]의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용정1일코스>, <용정2일코스>, <도문관광코스> 등 3개의 주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각 주제도에는 붉은색 말풍선과 흰색 말풍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전자는 3D 가상현실과 동영상, 텍스트 등이 연결되어 있고 후자는 일반적인 내용만이 들어있다. [그림 8]은 <용정1일코스>를 활성화 할 경우, 나타나는 지도의 일부 화면이다. 왼쪽 상단이 용정시내로 흰색 말풍선을 클릭(활성화)하면 미식거리, 붉은색 말풍선을 클릭하면 한글독서사가 나온다. 오른쪽 하단은 흰색은 장재촌이고, 붉은색은 운동주생가이다. 그런데 오른쪽 상단의 '지도', 위성, 중첩, 어스 등 네 가지로 표시된 부분 중에 '지도'를 클릭하면 [그림 9]와 같은 지도가 활성화된다.



[그림 8] 용정1일코스 위성지도



[그림 9] 한어와 영어 지명이 나타나는 용정1일코스 지도



[그림 10] 붉은색 말풍선을 클릭한 용정시내

이제 [그림 8]과 [그림 9]에서 용정시내의 붉은색 말풍선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 11]과 같이 한글독서사와 함께 붉은 색깔글씨의 VR 파노라마 보기가 나온다. 이어서 VR 파노라마 보기를 클릭하면, VR 동영상 화면으로 한글독서사 주변의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왼편 하단에 목록열기를 열면, 한글독서사 외부와 한글독서사 내부가 나온다. 목록열기 옆의 화살표 방향을 클릭하면 VR 동영상이 전화좌우로 이동하면서 보여준다. 이 VR 동영상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의 두 개 표시 가운데 첫 번째 것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바로 제1저자가 2011년 한

국학중앙연구원 과제에서 200자 원고지 30매로 작성한 기획항목 글쓰기(스토리텔링) 내용이다.

## 연변 최초의 한글독서사

### [민족의 얼을 키우는 터전, 용정시 광주매일한글독서사]

1995년 8월15일 - 용정에서 가장 변화한 미식거리(美食街), 양편에 식당과 술집, 노래방이 즐비한 거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주매일한글독서사>가 문을 열었다. 이름부터 낯선 이곳의 탄생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명칭도 <송원조선문독서사>로 바뀌고 장소도 근처에 있는 용정 제1유치원 건너편으로 이전하였으나, 용정의 한 문인이 “민족의 얼을 키우는 터전”으로 ‘광주매일한글독서사’를 평가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글독서사를 찾아 책을 읽고 글쓰기를 훈련받은 용정의 조선족 청소년 중에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한글[조선문]으로 글을 쓰는 전문작가만 2인이 나왔다. 기업법인 용정시 <광주매일한글독서사>는 2000년에 연길시에 세워진 <연변조선문독서사> 등 연변 전역에 세워진 20개가 넘는 독서사의 초석이 되기도 했다.

2010년 7월1일, 한글독서사의 설립자인 김재권 선생을 <송원조선문독서사>에서 만났다. 오전 시간인데도 한 아름 한글 기증도서를 갖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었다. 그러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책을 기증한다고 한다. 1층은 서점과 독서실, 2층은 전집류와 단행본 등 많은 우리말 책들이 책장에 빼곡한 가운데 책을 읽고 토론모임을 가질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송원조선문독서사>는 지구촌 한민족이라면 반드시 꼭 한번 방문해야 되는 용정의 새 명소가 아닐 수 없다.

### [왜, ‘한글독서사’인가?]

용정은 중국조선족의 ‘이민 첫동네’로, 연변조선족자치주를 구성하는 8개 현(안도현, 왕청현)과 시(연길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화룡시, 돈화시) 가운데 조선족의 인구비례가 가장 높은 곳이다. 또한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사실상 중국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연변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한국 관광객의 연변관광 1번지인 대성중학교와 용드레우물, <용정의 노래>[<선구자> 노래의 원제목]를 낳은 비암산의 일송정이 용정에 있다. 운동주 생가와 명동교회, 명동학교가 있는 명동촌도 용정시내에서 15분 거리에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역사문화중심인 용정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중수교 이후 일어난 거센 변화의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많은 조선족이 한국으로 떠났다. 북경과 천진, 청도와 상해 등 중국의 대도시와 연해 도시로 삶의 무대를 옮긴 사람들도 많다.

조선족의 대표도시인 용정에서도, 중국에서 살아야 하니 중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보내는 조선족 부모들이 많아졌다. 이런 형편에 한글 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이자 도서관이 왜 필요한가? 왜, ‘한글’ 이름의 독서사인가? 서점이라면 가까운 곳에 용정 신화서점이 있고, 도서관이라면 역시 멀지 않은 곳에 용정시도서관이 있지 않은가? 한글독서사는 처음부터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법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김재권은 전 재산을 털어 용정의 변화가, 미식거리에 주변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독서사를 만들었는가? 그 답은 김재권의 “사무친 한글사랑”과 “뜨거운 민족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소학교에 다니면서부터 햇강아지가 눈을 뜨듯이 책을 읽고 싶었다. 그러나 집에는 책이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먹으라고 주는 닭알을 한 알, 두 알 팔아 모은 돈으로 책을 샀다. 그러나 그것은 구지옥에 타는 갈증을 달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요일이 돌아오면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다.

위 인용문은 1938년 용정시 팔도진 쌍봉촌의 농민가정에 출생한 김재권이 1991년 10월 『청년생활』에 기고한 「나는 책을 사랑한다」 수필의 첫 부분에 나오는 글이다. 또 김재권은 “한 민족이 자기 말과 글을 잇는다면 사람이 살아 있어도 령혼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했는데, 이는 그가 어린 시절 일본군대의 군견(세 퍼드)에 물려 사망한 부친이 남긴 유언이었다. 당시 어린 나이로 부친 말씀의 참뜻을

물렸으나, 그는 한글을 모른다면 조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머릿속에 깊게 새겼다.

김재권은 16세였던 1954년부터 유치원과 야학교를 꾸리고 낮이면 어린이들에게, 밤이면 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그는 표준말과 조선 역사를 배우기 위해 평양방송과 서울방송을 들으며 역사이야기와 노래를 2,000여 수나 베끼었고 가는 곳마다 보급하기도 했다.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김재권은 우리말과 글이 '보배 중의 보배'임을 자각하고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 『청년생활』, 『구수하』, 『해랑강』, 『룡정문예』, 『진달래』 등 신문과 문예지를 40년 이상 꾸리고 우리말과 글을 보급하고 인재를 육성해왔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조국은 중국이다. 우리는 새 중국의 주인이다. 때문에 주인노릇을 잘하려면 한어를 잘 배워야 한다. 또한 우리는 중화민족 대 가정속의 조선족이다. 때문에 우리말과 글을 잘 배우고 사용하여 민족자치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그가 평생을 통해 모은 5,000여 권의 우리글로 된 책들이 불태워질 것을 우려해 땅 속에 묻어 보존했다.

1994년 10월, 김재권 선생은 용정시 문학예술계연합 주석(회장) 자리를 끝으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30여 차례나 현, 주, 성, 중앙정부의 선진사업일군, 학습열성자, 노력모범, 우수당원으로 표창을 받고 50여 차례나 주, 성, 중앙의 창작상을 받은 그였고, 아직 임기가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자리를 물러난 것은 후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도 있으나, 말년에 민족을 위하여 책을 쓰고 한글독서사를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김재권은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용정에서 바로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이름을 <백민성(白民聲)>으로 바꾸고]

"<한글도서관>을 꾸려 백의겨레와 민중의 목소리가 백두산과 더불어 이 땅위에서 영원히 메아리치게 하자." 이것이 김재권의 신념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백민성(白民聲)>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에게는 일생을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매달의 퇴직금과 5,000여 권의 책이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을 꾸리자면 책을 진열하고 독자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장소와 책상, 걸상이 있어야만 했다. 그는 용정의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지난 몇 해 동안 한국유지인사들의 경제적 후원을 받아 비암산 일송정 정자와 명동촌 운동주 생가를 복원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한 핏줄인 한국의 국민들에게 후원해 줄 수 없겠는지 손을 내밀기로 했다. 그는 며칠 생각하며 고심한 끝에 자신의 약력과 구상을 편지에 적었다.

한국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백의겨레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룡정시에 다 우리 글로 된 신문, 잡지와 서적을 볼 수 있는 <독서사>(도서관)를 꾸려 겨레들을 위해 남은 일생이나마 보람있게 살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자니 자금과 신문, 잡지, 책이 소요됩니다. 한국의 국민 여러분, 제 눈에 흠이 들어가기전에는 3대를 내려오면서 지켜온 민족의 알을 배달민족의 자랑인 룡정에서나마 지켜가려 합니다. 한국이 더욱 번영창성하여 중국에 살고있는 우리 겨레들의 뒤심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1994년 12월 10일. 룡정에서 白民聲 올림

#### [‘광주매일한글독서사’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써놓았으나 누구에게 보내면 책임지고 신문에 발표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는 편지 왕래를 해온 한국의 교수, 박사, 기업가 등 지명인사의 명함을 놓고 이틀이나 고심하던 끝에 변시연 옹을 선택했다. 1994년 8월14일 일요일 한국문학비건립동호회 일행 20여 명에게 버스 안에서 운동주 생가 복원과정과 용정에 대해 소개한 바 있었다. 당시 시간이 없어 용정시의 민족, 역사, 변경(邊境), 문화, 자원 등 다섯 가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그는 "우리는 민족자치를 실시하여 민족문화와 풍속습관을 보존하고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면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입니다. (...)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들은 우리를 우습게보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쓰여 있기를 <서울깍쟁이>라더니 대접을 받을 때는 4층 기와집이라도 지어줄듯이 살갑게 굴다가도 돌아간 다음에는 편지 한 장 없습니다. 사람 속이기를 밥 먹듯 하고 서푼자리 라이터, 손수건을 던져주면서 큰 선심이나 베풀듯하고 여자라면 오금을 못 쓰고 개도 안 먹는 달러를 던져주며 아니깝게 노는 사람이 이따금 있어서 한국의 위산에 손상주고 있습니다."라고 버스 안에서 쓴 소리를 한 바 있었다.

운동주 생가 방문일정을 다 마치고 용정에 돌아와 버스에서 내렸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백발의 노인이 김재권에게 다가와 명함을 주었다. “변시연이올시다. 70평생을 살아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귀빤을 얼얼하게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명함을 보니 ‘한국고문서연구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한국장서가협회 부회장, 전라남도문화재 위원’ 등의 직함이 적혀 있었다. 김재권은 혹 자신이 결례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자, 변시연 옹은 “아니요!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런 민족의식과 뜻대로 중국 사람들 속에서 곳곳하게 살아가는 동포들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라고 말했다. 변시연 옹의 말은 진심이었다. 귀국 후 그는 한국신문에 “용정은 우리 민족의 혼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 특히 용정은 북간도 지방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독립운동의 응결지였습니다. 지금 용정중학교 교정에 서있는 운동주 시인의 시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부끄럽지 않는 일이라면 용정의 한글도서관 건립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일입니다.”라고 썼다.

12월 10일 변시연 옹에게 보낸 편지가 한국 광주에 도착한 것이 12월 20일인데, 12월 22일 『광주매일신문』 사회면 톱기사로 나왔다. 즉각 후원회가 결성되고 광주광역시 시장, 전라남도 지사, 아태재단 이사장 김대중(전 대통령)을 비롯한 시민들의 성금이 줄을 이었다. 김재권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기적”과 마찬가지로였다. 한글독서사의 이름이 <광주매일한글독서사>가 된 것은 당연했다.

### [한글독서사가 문을 열기까지]

돈과 책이 있다고 하여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김재권은 <문화경영허가증>, <기업법인영업허가증>, <사단법인증명서> 등 10여 가지를 수속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뛰어다니며 입이 닳도록 설명에 설명을 거듭해야만 했다. 결국은 해결되었지만, “한글”이라는 두 글자가 문제였다. 아래는 김재권과 젊은 공직자 간의 입씨름 내용이다.

- 한글이란 뭐고 독서사란 무슨 뜻입니까?
- 정말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고요. 알면서 물을 턱이 있습니까?
- 한글이란 ‘훈민정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조선문자를 말하는 고유어 이름입니다. 백성들의 글이라고 해서 한글이라 했습니다. 5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북조선는 물론 중국에서도 조선어문교과서 이름을 ‘한글’이라 했습니다.
- 그럼 독서사란 또 무슨 뜻입니까?
- 개혁개방의 산물인데, 제가 이런 이름을 달게 된 건 서점, 도서관, 인쇄소, 출판사 등 계열의 봉사성기업을 꾸려볼까 해서 독서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 내가 묻는 건 수많은 이름가운데 왜 하필이면 <한글독서사>란 이름을 달았는가 그 말입니다.
- 말속에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 글로 된 신문, 잡지와 서적을 위주로 경영한다는 말입니다.
- 그럼 한어문 신문, 잡지와 서적은 안합니까?
- 지금 국가 도서관이나 서점엔 대부분 한어문서적이고 조선문서적이 적은 것 만큼 우리 독서사에선 필요한 한어 신문, 잡지와 도서만을 취급하겠습니다. 중국의 공민으로서 한어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꾸리는 것은 이름 그대로 <한글애독자협회>와 <한글독서사>인 만큼 조선문이 위주입니다.
- 아바이, 그러지 마시고 좀 툭 털어놓고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한국을 위해서 꾸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안 그렇소! 틀렸소. 여기 규약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오. 난 우리 민족의 후대들을 위하여, 룡정시의 문명건설을 위하여 한거요.
- <한글독서사>라 ... 아바이인 조선반도가 통일되면 조선에 나가 살겠지요?
- 또 틀렸소. 남을 속이는 건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똑똑하게 말해주지. 나는 중국공산당원이요.

1995년 8월15일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룡정시 광주매일한글독서사 성립을 축하한다!”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도서관은 꽃바구니, 축하족자들로 가득 찼다. 대

회장은 꽃밭 속에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한글애독자협회> 명예회장직을 수락한 연변 대학 정판롱 교수, 연변문련의 김경련 상무부주석, 연변일보사의 장정일부주필, 연변 인민방송국, 연변인민출판사, 연변민간문예가협회, 연변음악가협회, 연변무용가협회, 『천지』, 『청년생활』, 『예술세계』, 『문학과예술(현 화시대)』잡지사 등의 관계자들과 한국 광주광역시 송원그룹 회장이며 『광주매일신문』 신문사 고제철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20여 명의 축하단들이 속속 도착했다. 그런데 갑자기 상급관계부문에서 “속히 들어왔다 가라.”는 긴급호출령이 내려졌다. 개관식을 하려면 “한국도서”를 내려놓고 하라는 것이었다. 김재권은 평소 형님, 아우하고 지냈던 공무원 앞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동무는 걱정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그는 이런 일을 예상하고 사전에 시당위, 정부, 안전국, 공안국, 외사부문, 심지어 정치협상회의 까지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했고, 용정시 리준일 부시장이 직접 내빈들을 접견하고 있으니 시당위와 정부에서 반대할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오는 책들은 아직 대련 항구에 도착도 하지 않았던 터였다.

### [한글독서사와 함께 이어지는 우리글 우리말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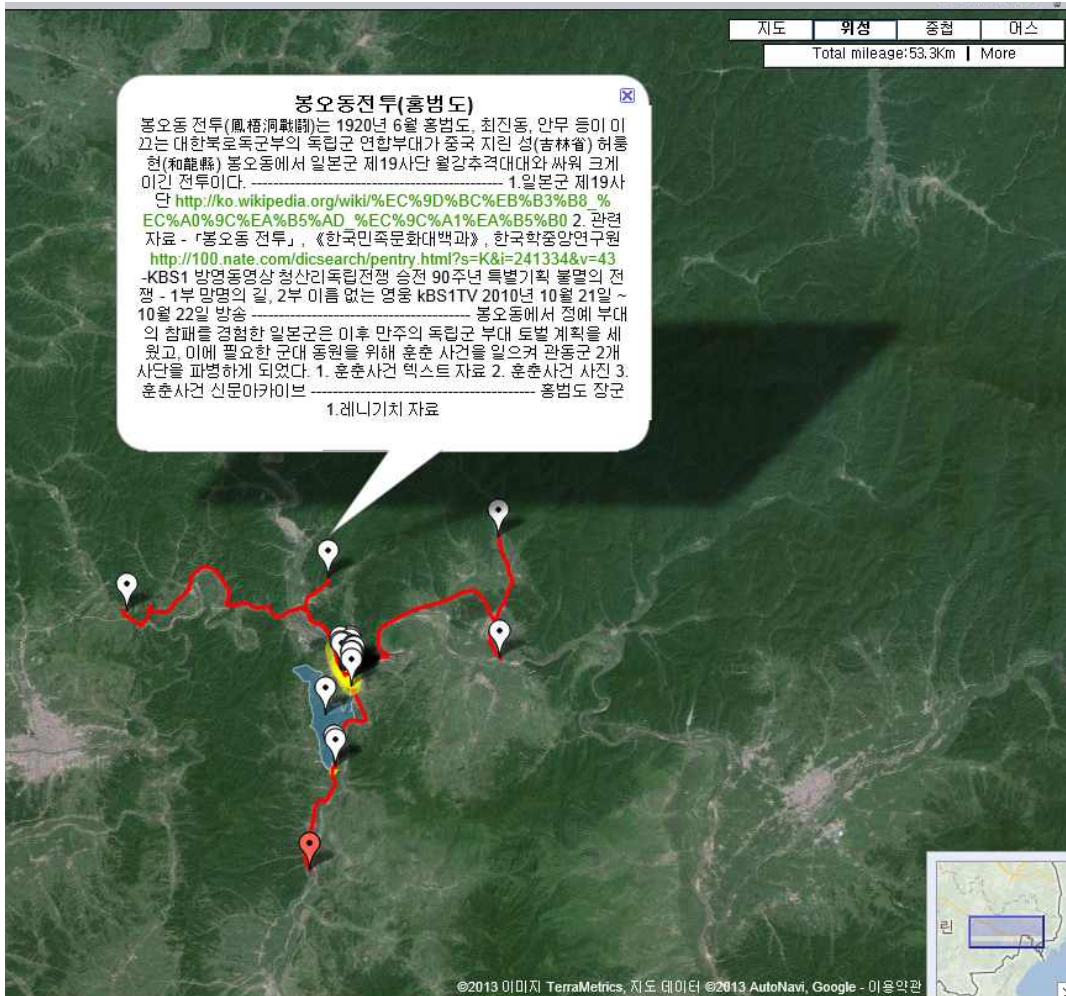
산고(産苦)의 아픔 끝에 광활한 중국 대지 위에 우리글로 된 첫 사립도서관이 성립되었다는 희소식을 들은 연변을 비롯한 동북의 조선족 각계 인사들이 축하인사와 많은 저서와 신문, 잡지를 보내왔다. 중국주재 한국대사 또한 “용정시 한글독서사가 한중 두 나라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더욱 큰 성취를 이룸과 동시에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축전과 두 개의 꽃바구니를 보내왔다. 한국 송원그룹 회장이며 광주매일신문사의 고제철 회장은 “한글독서사 명예회장직을 참담하게 이행하여 앞으로 훌륭한 도서관으로 꾸리도록 힘껏 도와드리겠다.” 하면서 이미 1만권의 도서를 보낸 바였다. 그 외에도 중국 국내와 남북한 기관(조선출판물교류협회, 한국사회교육방송국)에서 신문, 잡지와 도서를 계속 보내왔다.

5,000권으로 시작한 한글독서사는 만 2년도 되기 전에 중국조선족작가작품관, 열람실, 대출실, 자료실을 갖추고 2만여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으로 발전했다. <광주매일한글독서사>는 2005년 8월 <송원조선문독서사>로 개칭했다. 장소도 미식거리에서 이웃 광화거리 143호로 이사했다. 그러나 독서사는 처음 시작했던 사업들인 무료글짓기지도, 글짓기콩쿠르, 감상문쓰기, 이야기모임 등의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과 노동자에게 무료로 도서열람증, 대출증을 발급해주고 매년 우수애독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연길시에 세워진 <연변조선문독서사> 등 자매기관들과 함께 우리글과 우리말 사랑을 계속해 가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재권, 「나는 책을 사랑한다」, 『청년생활』, 1991. 10월
- 김재권, 「신념」, 『천지』, 1997. 4월
- 『연변일보』, 1991-11-25, 「사명감으로 민족의 뿌리 찾아: 민간문학자 김재권」
- 『흑룡강신문』, 1997-6, 「민족의 얼을 키우는 터전 - 용정시 광주매일 한글독서사」
- 인터뷰(2010년 7월1일, 용정시 송원조선문독서사 김재권)

흰색 말풍선을 클릭하면, 위치 혹은 장소 이름이 나오고 신문기사 등이 링크되어 나온다. 바로 이점에서 전자문화지도는 사진, VR 동영상, 신문기사, 연구저작 내용 등 다양한 관련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2]는 도문관광코스를 클릭한 후, 봉오동 전투지의 흰색 말풍선을 클릭한 모습이다. 다양한 자료(연구자료, 신문기사 등)와 링크할 수 있음으로써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문화지도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림 12] 도문관광코스 봉오동전투 설명글

#### IV. 맺음말

동북 조선족사회의 전자문화지도, 왜 만들어야 하는가? 꼭 만들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지도제작에 누가 참여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 물론 동북 조선족사회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2005년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의 승부처는 바로 문화산업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문화산업, 특히 디지털 기반 문화콘텐츠산업은 결국 문화자원, 즉 콘텐츠의 수집, 가공, 그리고 활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동영상콘텐츠 분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나로 묶는 플랫폼을 개발한 유튜브(Youtube)의 성공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동북의 조선족사회는 집거지구(연변조선족자치주)이든 산재지구(동북삼성의 조선족향촌과 도시)이든 기본적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 속의 에스닉(ethnic) 집단이다. 따라서 조선족사회의 문화자원, 곧 1차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수집은 조선족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자와 당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 식자층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다. 즉, 무엇보다도 조선족문화를 생산해온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협력이다. 특별히 학교와 연구기관, 그리고 조선족민족문화관 등이 주체가 되고 또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바로 전자문화지도이다.

한국의 연구기관에서도 문화지도를 서비스하는 곳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유교넷(<http://www.ugyo.net/>)을 운영하고 있는 (재)한국국학진흥원이다. 해외한인사회와 관련, 일종의 전자문화지도 (<http://www.curatingthecity.org/>)를 서비스하는 미국 LA보존회(Los Angeles Conservancy)도 있다.<sup>16)</sup> 이들 사이트는 공통적으로 일반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쌍방향 운영이다. 그러나 일반사용자의 참여 이전에 바로 일반사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의 질과 양이 만들어지고 계속 생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숙제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

연변전자문화지도의 샘플을 제작한 저자들 역시 온전한 사이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질과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별히 연변을 넘어 동북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두만강문화관광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북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코리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의 수집과 가공이다. 다음은 저자들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요컨대 동북 조선족사회의 문화관광사업과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문화지도의 제작이다.

- 1차 목표는 **연변 문화자원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
- 2차 목표는 수집된 문화자원 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엮어서 관광코스, 항일운동탐방코스, 둘레길, 이주민의 이야기 등과 같이 모아진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화**
- 3차 목표는 **두만강디지털문화지도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을 통해 연변일보, 흑룡강신문, 논문, 개인 사진 등 연구소 및 개인들의 문화자원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반 사용자들의 방문록을 만들어 사용자의 참여 활성화**
- 4차 목표는 연변문화에 대한 **가상체험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관광콘텐츠 활성화**
- 결국 연변 문화자원을 조선족 연구자들이 의미적으로 엮어서 일반 사용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현실 및 모바일 서비스 등의 관광콘텐츠화**

## 참고문헌

『동아일보』 (2008-8-5) 「영화 ‘눔눔눔’의 진짜 모티브는 용정 ‘15만원 탈취사건」  
 『연변일보』 (2008-7-28) 「룡정관광산업 전면 발전 추진」  
 『연변일보』 (2008-8-21) 「"내 고향사랑" 1일 관광코스 개통」  
 『중앙일보』 (2013-5-8) 「해외동포도 한국민 … 박근혜, 뉴욕 선언」  
 김동훈(2012), 「중국 조선족전자문화지도 제작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동훈-임영상(2012), 「전자문화지도와 조선족문화자원 두만강문화지도의 비전」(2012 중국두만강문화관광축제 발표  
 김흥남(2012), 「스마트시대의 기술혁신을 위한 R&D 전략」, 『한국통신학회논문집』 30(1).  
 임영상(2012), 「동북 조선족문화관과 한국사회의 협력」, 『재외한인연구』 26호  
 임영상(2011), 「재외한인사회와 디지털콘텐츠」, 『재외한인연구』 23호.  
 황유복, 「개혁개방 30년주년,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발전」, 황유복·남룡해 편, 『개혁개방 30년 이래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발전』, 민족출판사.  
 나단 쉐드로프(2004), 『경험디자인』, 서울: 안그라픽스  
 필립퍼키스(2007), 『필립퍼키스의 사진강의 노트』, 서울: 눈빛출판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유교넷(<http://www.ugyo.net/>)  
 CURATING THE CITY: WILSHER BLVD(<http://www.curatingthecity.org/>)

16) CURATING THE CITY: WILSHER BLVD 사이트는 미국 LA의 윌셔블루버드(Wilsher Blvd.)의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한 보전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담고 있는데, LA 다운타운에서 태평양 연안의 산타모니카까지 연결되는 긴 대로인 윌셔 거리의 핵심 중앙 부분이 바로 코리아타운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는 영어, 스페인어, 한글로 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MEMORY BOX에 아직 코리아타운 거주 한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 1. 중국 조선족 두만강문화관광축제

## - 두만강문화의 개념과 실행중심으로

김아인(두만강문화축제 총예술감독)

### 목 차

- I. 머리말
  - 1. 두만강과 도문시
  - 2. 중국조선족과 연변
- II. 중국조선족 문화 축제를 위한 핵심 전략
  - 1. 중국조선족 비물질문화
  - 2. 중국조선족 문화의 특색
    - 가. 현재 중국조선족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족의 문화
    - 나. 한국문화와 북한문화의 특성과는 다른 문화
  - 3. 도문시민 및 주변지역의 시민 참여
  - 4. 해외전문가 그룹의 재능기부
- III. 두만강축제의 실행 방향
  - 1. 전문가 그룹 구축
  - 2. 전통을 중심에 두고 연변의 젊은이들과 소통
  - 3. 대중성 및 향유성
  - 4. 변방에서 중심으로, 흐르는 두만강문화
  - 5. 창의적 인재발굴과 문화산업으로의 기틀마련
- IV. 정부와의 협조사항 및 보완점
- V. 맺음말
- VI. 별첨

## I. 머리말

본 글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매년 4회째 중국 도문(Tumen)에서 개최된 두만강문화관광축제<sup>17)</sup>의 소개와 두만강축제 기획 시 고민했던 것들, 4년 동안 실행해 나아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쓰여 졌다. 4회를 치러내고 난 지금, 처음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두만강에서 시작 할 때는 나에게조차 흐릿했던 연변 문화라는 찬란한 보물, 그 보물의 시작점인 두만강,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두만강 축제의 존재가 더욱 선명해 졌다.

2010년 7월 두만강 축제가 너무나 작은 도시, 중국 도문 두만강 변에서 시작되었고, 소규모로 기획되어 시작되었던 축제가 2013년에 4회를 맞이했다. 2010년 시작된 후, 2011년 제2회 두만강 축제에는 8일 동안 매일 밤마다 2~3만 명이 모여 들어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했고, 2013년 제4회에 이르러서는 축제 참여 관광객이 약 2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도문시 등록 인구가 12.6만, 거주 인구가 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축제를 위해 도문을 방문한 여행객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17). 이하 두만강축제라 표명

두만강축제 인력은 전문 스태프 50여명, 보조 인원 50여명과 자원봉사인원까지 합하여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0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 정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총 8일간을 함께 참여한다. 여기에 중국 다른 지역뿐 아니라 한국,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재능기부가 더해지고, 중국 조선족 문화예술 단체, 타 민족 문화인들뿐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간다.

중국 연변은 중국조선족 집단 거주지로 ‘중국 조선족’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곳이다. 두만강 축제는 이러한 중국 조선족 문화와 예술이라는 보물을 잘 담아내어 보여주는 장으로서 발전해가고 있다.

## 1. 두만강과 도문시의 배경

두만강이 도시를 관통하는 유일한 도시 도문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를 자랑으로 한다. 도문이라는 도시의 지리적, 역사적, 시대적 배경은 이미 국제적인 축제의 도시로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였다. 이렇듯 두만강이라는 자연 천혜의 보화를 품고 있는 도문에 두만강 문화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우선, 지리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를 시작으로 ‘조선’ 특별히 ‘중국 조선족’의 단어 생성의 기원부터 연구하며 문화 만들기의 기초를 다져갔다. ‘두만강 축제’의 핵을 ‘중국 조선족 문화’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도문은 중국의 북한 경계 지역으로 폭이 50m도 되지 않는 두만강이 중국과 북한을 가로르고 있다. 중국에서도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매력적인 “두만강반 첫도시”<sup>19)</sup> 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두만강을 통해 이를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한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6개국에 달한다. 두만강은 중국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항구를 이용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이며 두만강 유역의 북한, 러시아, 몽골, 한국, 일본과의 초(超)국경 연계개발 사업 중심 지역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동북아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는 창지투선 도구(장춘-연길-도문)로서 중국 경제성장의 4개 엔진을 선도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몽골-동북3성-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발전 전략 지역이다.



중국지도에서 도문의 지리적 위치

도문은 조선족 이민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역사, 철도의 역사가 있는 이야기가 풍성한 도시이다. 또한 도문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장길도계획<sup>20)</sup>의 중심지역으로서 문화를 중요시

18) 도문시 통계국 인구조사자료를 참고

19) "도문 강반 첫 도시"는 연변에서 유일하게 건립된 도문디지털전시관에서 이런 명칭을 참고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도문시의 정부관계자들의 의지가 강하다.<sup>21)</sup>

## 2. 중국조선족과 연변

연변 지명은 중국 조선족의 집결지인 연길 주변지역이라는 데서 유래하였고, 연변은 8 개현과 시로 이루어져 있다. 연길은 연변의 수구부 도시이고, 그 외 도문시, 훈춘시, 용정시, 화룡시, 돈화시 6개의 시와 왕청현, 안도현 2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변은 중국의 22개의 성 가운데 동북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속하며 그 성 중의 하나인 길림성에 속해 있다.

연변은 조선족 자치주로 중국 조선족으로 이루어진 소수민족 자치주이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sup>22)</sup> 중국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91.51%)과 55개의 소수민족(8.49%)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sup>23)</sup>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민족 자치주를 가지고 있는 30개 자치주 중 하나인 동시에, 중국의 소수민족 중 자치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라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몽골족과 조선족 두 민족뿐이다.

중국은 150여 년 전 한반도로부터 넘어와 중국에 정착하고 있는 조선민족을 1928년 제 6차 당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그 당시 조선(한반도)은 일제강점기로 나라를 잃은 민족이었고, 그 설움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던 조선민족은 이때에 일제에 속하지 않고 중국에 거주하며 땅을 개간하고 지키게 된다. 드디어 1952년 9월 3일 중국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되었고, 초대 주장은 주덕해가 맡았다.

중국에서는 민족 명칭을 정하고 민족(民族)의 “족”(族)자를 붙여, 각각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였다. 이때에 한족, 만족, 묘족 등의 여느 다른 민족과는 달리 중국의 정착시기가 오래지 않은 민족인 “조선족” 또한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하고,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혁명투쟁과 개혁시기에 중국에 대한 조선민족의 역할과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민족들과 함께 평등하게 한반도 문화를 가진 중국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선포인 것이다. 중국에서 “족”이라는 명칭은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의미이며, 각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민족의 자부심이 서려 있는 자랑스러운 단어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조선족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향, 낮게 여기는 느낌이 있다. 이것은 현대 한국문화에서는 “조선”이란 언어의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빨갱이’, ‘공산당’ 등으로 대변되는 단어이기도 했기 때문에 터부시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한 “족”이라는 글자도 천한 단어, 혹은 비하하는 단어에 쓰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조선족”이라는 단어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되어 무시하게 되고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족” 문화, 즉 “민족” 문화로 이루어진 중국을 알게 되면 한국의 일반인들의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며, “조선족”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은 “족” 문화에 많은 것이 깃들여 있는 나라이다. 중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에서,

20) “장길도 계획”-연변일보, 길림신문 참고

21) 삼성경제 연구소, “중국의 두만강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시사점” 참조.

중국의 대 두만강 경제권 개발. 개방은 국가 균형발전계획인 “동북진흥전략”의 하위 구성 요소

“동북진흥전략”은 동북지역을 중국의 4번째 경제성장 거점으로 육성함을 목표로 설정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 계획 강요(창지투) 선도구 계획, 는 국내 개발과 대외 개방을 연계해 경제성장의 제4엔진을 선도하는 역할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두만강지역 국제 협력개발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먼저 두만강지역을 독자 개발하겠다는 의미

22). 55개의 소수민족8.49%, 다수민족인 한족91.51% (참고: 중국 제6차 전국인구조사 데이터)

23). 2010년 중국 제6차 전국인구조사 데이터 참조 (2010年第六次全国人口普查主要数据公报)

중국정부는 각각의 소수민족들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조선족의 문화와 예술 또한 말할 것도 없이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지지가 있다. 이 조선족이라는 언어를 이해하다보면 중국의 소수민족이 보이며, 중국의 소수민족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II. 중국조선족 문화 축제를 위한 핵심 전략

두만강축제는 매년 연변의 하절기인 8월중에 시작하여 8일 동안 도문시 두만강 광장에서 진행된다. 주최와 주관은 연변주와 도문시이며 4회를 마치면서는 동북의 여름에 행해지는 행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있고 완성도 높은 축제로 자리했고, 2회와 3회는 중국에서 제일 특색 있는 민족 축제 상을 수상하였다. 4회에 접어들면서 명실 공히 도문 하면 두만강 축제라는 도시의 브랜드로도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

지난 4년의 두만강 축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1. 2010년 축제 시작단계
2. 2011년 중국 조선족 비물질문화를 중심으로 놓은 단계
3. 2012년 두만강문화를 정립하고 초기 실행하는 단계
4. 2013년 두만강 문화를 더욱 발전, 계승해 나아가는 단계

제 2회 두만강 축제에서부터 축제의 핵심을 중국조선족 비물질 문화로 놓고, 미술, 음악, 연극, 문학 등 문화예술 전 영역을 포함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대 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두만강축제를 지역민들에게는 친근하면서도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만강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고, 몇 가지 원칙들을 세워 나갔다.

2010/2011/2012/2013 두만강축제(상우, 상좌, 하좌, 하우 순으로)

### 1. 중국 조선족 비물질 문화



축제에는 무형문화재의 의미는

“비물질문화”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에게 비물질 문화를 알린다 라는 목적이 있다. 현재 도문에는 중국 최초로 만들어진 중국조선족 비물질 전시관이 있다<sup>24)</sup>. 현재 많은 조선족들은 중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고, 젊은 세대는 조선족의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조선족의 인구감소는 많은 학자들이 이미 발표한 대로 조선족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조선민족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그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일은 매우 가치있는 이일로 여겨졌다. 조선족 문화와 예술을 통해 점점 소실되어가는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축제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족 비물질을 소개하는데 노력한다. 물론 그 안에는 어른과 아이의 교류 즉 세대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젊은 세대가 외면하지 않는 조선족문화의 아름다움과 자랑스러움을 전하기 위해 많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족 비물질 유산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전시관 안의 절목들을 야외로 끄집어내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힙합과 비보이 등이 사물놀이와 함께 베틀전을 기획하여 전통문화가 현대문화와 어울리는 모습 등 젊은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민족: 조선족” 편을 만들어 앞서간 문화예술인을 소개하였다. 지금까지 소개된 인물로는 2011년 축제에 소개된 영화배우 김염이 있다. 그는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중국영화의 황제란 호칭을 받았다. 2012년에는 중국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라도 광주출신인 음악가 정률성, 2013년에는 중국의 피카소라 불리는 중국 용정출신의 미술가 한락연이 소개되었다. 이렇듯 우수한 조선민족을 소개하고 역사를 함께 소개하는 노력과 함께 조선족의 문화가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 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에 큰 문화행사라는 것은 유명한 가수나 영향력 있는 예

24).도문은 2009년 중국최초로 조선족 비물질 문화유산관을 세움(무형문화재)

술인들이 나오는 정도가 전부였다. 축제의 성과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다는 정도로 평가되기 일쑤였고 연변의 많은 정부주관의 행사는 오전 8시에 개막식을 하고 10시쯤 끝나면, 방문객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해산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한 축제가 익숙하던 시민들에게 두만강 축제의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연령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민족문화를 소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애썼고 어려워도 지역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 2. 조선족의 문화의 특색

### 가. 현재 중국조선족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족의 문화

연변의 큰 시장에 가면 곳곳에 있는 한복집이 있고, 절기 때마다 한복을 즐겨 입는다. 조선족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한복을 입으며, 오히려 이제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이곳에서는 일상적으로 보게 된다. 특히 조선족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전통무용이나 전통악기 다루는 것은 필수교과목으로 하고 있어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전통무용을 하고 조선족 민속 악기를 다룰 줄 안다.

축제에서는 이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조선족 학교에서 배우고 연습되고 있는 절목들을 선별하여 무대에 세우고 있다. 필자가 처음 아이들의 실력을 대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프로급 수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다. 한반도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지만 표정과 몸짓은 북한 예술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중국조선족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낸다. 거의 대부분의 조선족 유치원, 소학교(초등학교)의 대표절목들은 중국 중앙의 소수민족 민속경연대회 같은 콩쿨에서 대표 상들을 많이 타고 있다.



도문시 조선족유치원 무용 “색동저고리”  
2013, 축제 개막식 식전공연



전국 중소학교예술콩쿨에서 특등상을 받은  
도문시 제2소학교 사물놀이2013, 개막식 본 공연

축제에서는 이러한 절목들을 발굴하여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외국관광객들이나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축제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준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나오는 큰 무대를 보기 위해 시민들은 각 지역의 일가친척까지



동원하여 응

원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축제의 큰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두만강축제가 아니라면 볼 수 없는 색다르고 정겨운 문화인 것이다.

#### 나. 한국과 북한문화의 특성과는 다른 중국조선족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대화가 많이 되어있는 것에 비해, 중국조선족 전통문화는 더 전통으로 돌아가고 옛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민족의 성격을 고집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듯하다. 또한 문화가 그 지역의 자연과 환경, 시대에 따라 변화하듯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수용하고 있어서 한민족문화의 그 뿌리는 두지만 조선족 만의 독특한 문화로 변천되어 온 것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는 조금은 낯설고 투박해 보일 수는 있으나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감을 느끼게 되고, 한국에서는 점점 사라지는 옛 멋이 담겨있다. 또한 그 안에 북한의 문화예술적인 모습과 중국의 색채가 더해지고 섞여져 독특한 조선족 문화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연변가무단이나 용정가무단, 도문가무단 등에서 보여 지는 많은 프로그램 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로 이야기 하면 국립극단이나 시립극단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민족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그들을 지원한다.

두만강 축제에서는 가무단들 최고의 절목들을 보여주려 노력한다. 2013년에는 연변가무단에서 유명한 장구무와 물동이춤을 선보였고, 용정가무단은 장구를 변형한 북춤과 상모, 가야금등이 혼합되어 있는 용정가무단 만의 독특한 색채를 보여 주었으며, 왕청가무단은 중국에서도 상무춤의 대표 가무단으로써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를 보여주었다.



연변가무단의 장구무 2013 개막식



연변가무단의 물동이춤 2013 폐막식

도문 시 가 무 단 의 방 치

춤 2013축제 비물질의 날 공연



장구를 변형한 북춤과 상모, 가야금이 혼합되어 있는 용정가무단의 무용. 2013축제 비물질의 날 공연



왕청현 가무단의 상모춤 2013축제 비물질의 날 공연



이런 모습들은 한국에서나 북한에서도

볼 수 없는 중국 조선족만의 문화임이 분명하다.

2012년 두만강축제에서는 1,000명이 동시에 장구무를 추는 진기한 모습을 보여주어 세계 기네스 도전에 성공하였다. 이 모두는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군중무는 축제에서도 볼거리이며, 연변의 큰 행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 군중무는 북한의 “아리랑”<sup>25)</sup>에서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중국 조선족의 군중무의 동작과 움직임은 북한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만들기도 한다.



2012년 도문시민1000여명이 동원된 장구무 세계 기네스 도전 성공



“천인장구무”의 모습

25) 북한의 아리랑: 10만여명의 주민이 동원돼 매스게임, 카드섹션, 태권도, 무용 등을 선보이는 북한의 대집단 체조이자 예술공연.



201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 전문가를 초빙하고 1만여명의 연변의 학생들을 동원하여 만든 카드섹션

### 3. 도문시민 및 주변지역의 시민참여

축제에서는 중국 조선족 문화예술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그 주인공을 더욱 빛내주기 위한 조연으로 유명가수나 인물들이 등장했다. 조선족 문화예술로는 연변의 8개의 현시를 대표하는 공연들이 있다. 도문은 장구춤, 왕청은 상모춤, 화룡은 삼노인(만담), 훈춘은 퉁소, 용정은 가야금 등을 들 수 있다. 두만강축제는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장을 마련할 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장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동북의 조선족 뿐 아니라 한족의 문화관들을 초청하여, 지역의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여기에 이들을 빛내주는 사람으로 유명가수나 문화예술인들을 초대한다. 한 유명가수는 3년째 재능기부로 게런티가 없이 이곳을 찾아와 프로의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두만강의 소중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스타급 연예인들도 노게런티로 이곳에 와서 두만강변의 사람들에게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축제의 주제공연 즉 축제 전체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주인공인 도문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연으로 채워졌다. 2011년 처음 도문시민들과 주제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도문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연에 대한 기대도 자신감도 없었다. 그러나 주제공연이 3회로 이어진 2013년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 도문만의 공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때때로 현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예술의 가치, 그 소중함이 외부의 사람의 시각에 의해 더욱 높이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두만강축제는 어쩌면 외국인인 필자의 눈에는 너무나 우수하고 찬란했던 조선족 문화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계발하며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다.

그 일환으로 도문 두만강만의 비물질 연출공연 개발을 시도하였다.“2011 두만강 아리랑”, “2012 두만강 뱃놀이”, “2013 두만강 전설” 공연(사진참고)이 그것이다. 도문가무단을 중심으로 도문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도문의 가도 팀들을 훈련시켜 만들어지는 이 공연은 중국 도문만의 연출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연변대의 연극 연출가 방미선교수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도문 두만강만의 연출 공연은 중국내에서도 시도해 보지 못한 신선한 공연이라 할 수 있겠다. 2012년에는 1회 두만강 아리랑 공연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2회 두만강 뱃노래를 선보였고, 2013년에는 중국의 전문가들과 도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도문시만의 두만강 전설을 만들어 냈다. 물론 연변의 전문가와 외국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여 만들어지는 공연이다. 도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앞으로 도문의 문화브랜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다.<sup>26)</sup>



#### 4. 해외전문가 그룹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구성과 방향과 원칙이 세워지면, 본격적인 실행으로 들어간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계획을 세우고, 문화예술인들을 불러 모으고 시민들과 커다란 행사를 준비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현지의 인력은 도문이나 연길주변에 남아있는 조선족 청년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지 인력만을 가지고는 이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치러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를 초빙해 왔다. 각 부분의 전문가들은 도문으로 1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머무르면서 현지의 인력을 교육시키며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갔다.

축제기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두만강에 모여든다. 이들 중 많은 한국인들은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자신의 재능을 기쁨으로 지역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아갔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가 만나 현지의 사람들과 직접 공연을 만들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루어지는 만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차이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배려와 존중이 싹트고, 거기에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이 더해져 서로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짐으로써 그 전에 있었던 한국인과 조선족 간에 존재했던 선입견을 부수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장이 되고 있다.

젊은 한국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현지의 대학생 봉사자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속에, 친밀한 유대감이 생기고, 이는 축제기간 중에 뿐만 아니라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 갈 때에는 “조선족”을 다시 알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또한 조선족들도 한국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됨은 물론이다.

이렇듯 해외 전문가와 현지 아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인과 조선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된다. 축제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조선족과 한국인들 간에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세계가 중국을 알려고 하는 이 시대에 감히 한국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들어 내지 않는 한국의 많은 민간단체와 개인이 조선족동포들과 끊임없이 교류해야 한다는

26) 운남성에서 장애모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소수민족 공연, 나시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연으로 인해 나시족 마을의 경제발전이 이루어 졌으며, 운남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http://www.yndaily.com> 2005년08월19일 10:28 운남일보사이트 참고

것이다. 중국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기 위한 조선족의 역할은 단순한 언어적 장벽을 해결해주는 통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이들을 이해하다 보면 중국의 소수민족이 보이며 중국의 소수민족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중국이라는 다민족국가를 보는 시각이 좀 더 깊어진다는 생각이다. 짧은 축제 기간을 통해 만난 중국 조선족의 젊은 사람들이 향후에도 전문적인 인재로 발돋움을 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한국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축제기간동안 한국의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지역문화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축제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이다.

### Ⅲ. 두만강 축제의 실행 방향

여름 두만강축제는 준비기간을 1년으로 잡는다. 2013년 축제의 준비는 이미 2012년 축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한다. 2011년, 2012년에 오신 작가들, 많은 공연예술인 등 문화예술인들에게 다음 해의 축제 참여를 권유하고,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2013년의 축제를 시작하였다. 특별히 제3회 2012년은 중장기 성장의 기틀이 되는 해로 위의 5가지 원칙과 함께 실행의 5가지 원칙을 더해 두만강 문화를 만들고 전하는 축제로 준비하였다.

#### 1. 전문가 그룹 구축

두만강문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세웠다. 그것은 앞으로의 두만강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초를 닦는 것이라 생각했고, 축제는 절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의견 듣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력, 지원 할 수 있는 인력과 노하우를 가진 외부기관과 만나야 하는 것은<sup>27)</sup> 실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더욱더 절실한 필요이다. 그래서 2012년에는 연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북경과 상해, 한국 등지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했고,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기꺼이 두만강 축제를 도와 주었다. 앞으로도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실행해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긴다. <sup>28)</sup> 그래서 2011년부터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학술행사이다. 해외의 전문가, 지역의 전문가,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두만강이라는 지역에 모여 나누고 발전시켜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다.

#### 2. 전통을 중심에 두고 연변의 젊은이들과 소통

해를 거듭 할수록 발전해가는 두만강만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제4회 두만강가요제“ 나도스타”, 전통음악과 지역 음악예술인들과 외국의 음악

27) 중앙민족대학 황유복 논문 <조선족 발전을 위한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

28) 한국외국어 대학,임영상 <동북조선족문화관과 한국 사회의 협력>

인들이 만나 지역시민들과 교류하는 제4회 두만강반 음악회, 더욱 많은 나라들의 작가들의 참여를 유치하고, 지역작가들을 국제무대에 소개하고 교류하는 장인 제4회 국제예술전, 일반인들뿐 아니라 지역의 선생님들에게 재능을 전수하는 “예술아 놀자(교육프로그램)”, 한바탕 뛰어 노는 마당인 제3회 젊음아 놀자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시민들은 축제를 기대함은 물론 두만강만의 문화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연변지역 젊은이들의 장인 “젊음아 놀자” 프로그램은 지역 시민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의 소통의 장으로 좋은 예가 된다. 연변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은 문화를 향유할 곳이 없고, 그들의 끼를 발휘할 변변한 장소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변의 많은 축제를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이유를 연구하고, 두만강 축제에서는 전문인과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연변지역의 젊은이들의 장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연변의 많은 문화행사들이 왜 젊은이들과 단절이 되어 있을까 에서부터 축제팀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2011년 젊음아 놀자는, 연변의 젊은이라면 누구나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고, 그들을 최대한 돋보이게 해 줄 무대, 조명, 음향 등 연출전문가들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11년 여름 주말 밤 광장을 가득 메운 젊은이들은 약 3만명 가량이나 되었고, 도문의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들이 춤을 추며 소리치는 그 밤에 하나가 되어 함께 신나게 놀았다.

연변의 젊은이들은 중국의 변화한 도시나 한국과 일본, 미국 등으로 많이 나가 있다. 또한 연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도문과 같은 변경보다는 연길과 같은 조금이라도 큰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축제기간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지역 시민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며 노는지,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축제를 통해 처음으로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노는 것을 보았다고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다.<sup>29)</sup> 또한 축제는 지역 청년들에게 도문 뿐 아니라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1년,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는 이를 한 단계 뛰어넘어 아이들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젊다면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려 노력하였다. 2013년에 새로운 시도로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무대에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물놀이와 힙합, 비보이와 초등학교 아이들의 체조가 어우러지는 무대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처럼 세대간의 소통을 위한 장을 만들려는 목적이 두만강축제의 중요한 줄기중 하나이므로 2014년에는 더욱 소통이 일어나는 무대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 3. 대중성 및 향유성

2010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매해 약 1,000여명의 전문가들과 예술가들이 두만강 축제를 위해 도문에 모여든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와 예술가들이 두만강에 모였을 때에는 그들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지역민들이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가깝게 다가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지역민들은 전문가, 예술가들과 함께 예술을 즐기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함께 만들어낸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 대중성을 가지고 지역에 새로운 지역 문화, 도시문화를 만들어 낸다. 두만강

29) 2011년 두만강축제시민 앙케이트조사, 축제사무국 자료제공

축제를 통해 만들어 내는 문화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기고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만의 공연까지도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까지 이르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 교육 강화 : 창의적 체험교육 강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

축제를 1, 2회 만들어가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축제에 오시는 각 지역, 각 국의 훌륭한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제에서 이루어졌던 좋은 성과들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과 지역 선생님들께 짧은 시간동안에 재능을 전수시키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또한 앞으로 여름과 겨울을 연결하는 프로그램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축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것임은 물론 축제가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본다.

두만강 축제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2013년4회로 이어진 두만강 축제의 배후에 있었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끊임없이 젊은이들과 소통하려 하며 이 지역의 미래인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시도하여, 창의적인 사고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 주려고 노력하였다.<sup>30)</sup>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한번의 만남으로도 사람의 인생은 바뀔 수 있듯이 한 해 한 해 멈추지 않고 흐른다면 지역의 문화 뿐 아니라 연변지역의 문화의 흐름도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 4. 변방에서 중심으로, 흐르는 두만강문화

두만강 축제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가진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치하고 국제예술전의 순회전, 지역작가 발굴, 외국에 나아가는 기회제공, 지역작가들이 외국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예술힘”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국제예술전은 두만강축제에서 국제성을 갖는 가장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중국의 중심인 북경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축제의 국제화 일환으로 한국의 미술관의 초대로 순회전을 개최하였다. 이는 두만강축제가 흘러나가는 도문이라는 변방지역에서 예술의 중심지로 흘러들어가는 사건이었다고 본다. 제1회 두만강국제예술전은 중국과 조선, 한국의 유명작가들을 두만강에 모으는 전시를 하였다. 그 행사에서는 의미 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작가들이 자신의 대표 작품을 자비로 두만강에 보내주었고, 그 중심에는 중국조선족을 대표하는 중견작가들이 있었다.<sup>31)</sup> 이러한 흐름은 2회로 연결되어 갔고, 2회에는 북경의 작가중심으로 연변의 숨겨진 작가들이 함께 하여 주었다.<sup>32)</sup> 1회에는 두만강지역에서 국제예술전을 진행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면, 2회에서는 누구도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한 국제 순회전을 개최하였다. 사실 1회 때에는 도문이라는 변경지대에서 시작된 예술 전시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펼쳐졌다.

연길, 장춘, 북경, 한국, 조선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대작들을 작가들은 기꺼이 두만강에 보내주었고 훌륭하게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처음으로 미술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루 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전시관으로 가득 들어와, 작품보호

30) 2013, 예술아 놀자 프로그램 별첨 자료 참조

31) 중국 조선족의 작가로 북경과 상해, 한국, 유럽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문성, 이철호, 최현기, 김영식, 박춘자, 박광섭이 1,2,회 두만강 국제예술전 작가들이다.

32) 연변에 살고 있는 제2회 두만강 작가군: 최준, 김영삼이 있다.

를 위해 전시관을 잠시 닫는 사태가 벌어지는 가슴 벅찬 일화도 있다.

2012년 두만강국제예술전은 또 한 단계 도약을 했다. 세계의 변경국가라 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 작가들과 조선족작가, 한국의 작가가 함께하는 전시를 두만강에서 시작하고 또한 이 전시는 북경에서 다시 라틴아메리카로 순회전을 기획하였다. 물론 그 중심에는 두만강이 있다.

국제예술전의 바른 목표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데 있다. 예술가들에게 예술의 힘을 다시한번 경험하자는 데 있다. 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하고 두만강에서 다시 한 번 예술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며, 사람을 생각하며 바라보자는 데 있다. 이 곳 두만강에서는 세계의 유명함이 통하지 않으며, 높고 낮음도 통하지 않는다. 미술가라면 자신의 미술로, 음악가라면 음악으로, 무용가는 무용으로, 예술 그 자체로 이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제예술전은 전문가의 본질인 소통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며 축제는 그러한 장을 훌륭히 마련해 주었다.

## 5. 창의적 인재발굴과 문화산업으로의 기틀 마련

축제를 준비하며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재의 부족이다. 연길은 현재 많은 인재들이 중국의 대도시로, 한국과 일본, 미국 등지로 빠져 나가면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도문에 있으려 하지 않는다. 연변에 젊은이가 있다고 하여도 두만강축제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할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 더욱이 외부에서 많은 인재를 부르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과 여러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들고 어렵더라도 현지의 청년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전문인으로 길러 내자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들에 의해 축제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곧 두만강문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고 지금도 젊은이들을 가르쳐가며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축제 팀에서 4년째 두만강 축제를 만든 조선족 1명은 2012년부터는 팀장으로 세워져 한국의 전문가들과 나란히 축제를 만들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있다. 축제에서는 많은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두만강축제를 참여하여 길러진 많은 젊은 중국 청년들 가운데 앞으로 중국 조선족 뿐 만아니라 중국의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나올 것임을 믿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현지 젊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

또한 연변의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비단 인재 발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축제로 인해 젊은이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문인재의 등용으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기에 이르렀다. 축제는 도문뿐 아니라 연변지역의 젊은이들의 인재발굴의 허브가 되리라 믿는다. 축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키며 고집하려는 것이“언어”의 사용이다. 두만강축제에서는 연변의 여느 큰 행사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어를 제1언어로 고집한다. 많은 정부의 조선족들도 한글을 읽고 쓰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조선어 보다는 중국어가 더 쉽고 익숙한데, 축제에서는 민족의 언어를 지키는 첫걸음으로 조선어 중심으로,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조선어와 한어를 사용한다. 인쇄물로부터 시작해서 안내판,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선어를 제1언어로 고집하다보니 한족이 다수인 공연에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축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긴다. 또한 연변지역의 언어 사용의 독특한 특징을 관광 상품개발에 응용하고 있다. 필자가 연변에 있을 때 많이 느낀 것이 곳곳에 숨 쉬고 살아 있는 한민족 전통문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연변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선하

게 느끼는 것은 분명 중국에 온 것이 맞는데 간판이 모두 한글로 되어있다는 것이다.<sup>33)</sup> 연변의 8개의 현시의 간판은 다 같은 듯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상품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비롯하여 작은 차이 일뿐이지만, 그러한 작은 발견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서 상품을 개발한다면 연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져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조선어와 한어로 쓰여진 간판들



한어(중국어) 직역으로 인해 어색한 조선어 안내표지

중국, 러시아, 조선의 3국 접경지역인 훈춘시에는 모든 간판들이 한어, 조선어, 러시아어 3국어로 되어있다

IV . 정부와의 협조사항

및 보완점

기본방향을 세우고, 실행을 하기에 앞서 정부의 도움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문시 당위 서기<sup>34)</sup>를 중심으로 한 도문시정부는 도문을 두만강 문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문만

33) 연변은 조선족 자치주이기때문에 간판의 표기를 조선어와 한어를 같이 쓰게 법으로 되어있다.

의 새로운 축제, 전략적인 축제를 만들기로 계획하고 먼저 전문 인재를 등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축제에 총감독을 외국에서 영입, 축제 전반을 운영해 가는 전략을 세웠다. 축제는 전문가가 만들어야함을 인식한 도문시 정부는 정부 아래에 축제사무국 즉 문화관광복무센터를 두어 전문적으로 두만강 축제만 연구하고 준비하는 기관을 만들었다.

물론 처음부터 정부와 전문가들이 마음을 맞춘 것은 아니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였고 지금도 조율작업은 진행 중이다. 도문시 정부에서 하해정 정협주석이 축제의 총괄대표로써 정부와 전문가 실무진들 사이의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하주석은 4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축제의 총감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도문시 각 부서로부터의 도움은 축제 담당 부시장을 임명하여 적극적으로 축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축제는 중국 도문시에서 주관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로만 절대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반드시 정부와 협력하여야만 가능하다. 각부서의 국장들을 움직여 실무에 함께 뛰게하는 역할은 축제담당 부시장이 담당하여 실무전문가들이 일을 할 때 어려움을 최소화 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 도움을 기초로 하여 실행을 하고 있다.

한편 연변자치주 내에만 해도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모두가 비슷하다는 견해다. 연변은 조선족자치주으로써 각 현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원이 풍부하지만 각의 특색과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연변8개 현시의 축제를 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은 물론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문화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 가운데 8개의 현시가 연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긴다. 도문에서 두만강축제를 했다고 하여 연길에 이와 똑같은 축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연길만의, 용정만의, 훈춘만의, 화룡만의 뛰어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화를 만들어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빠른 이익과 효과를 보려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 뿐 만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생각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두만강 축제는 두만강 문화를 기반으로 이루어 졌다. 앞으로 두만강 축제는 각 현시와 연결하여 연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조선민족문화를 보존발전 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도문시 정부는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한국인 전문가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문 인재들의 등용을 힘썼으며, 도문 정부의 관리들은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발로 뛰어주었다. 필자는 4년째 두만강 축제를 담당하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도문정부의 지도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변해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들도 두만강 문화 축제의 도시를 만드는 전문가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본다. 도문시정부 지도자들의 이해와 도움이 없었다면 두만강 축제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V. 맺음말

---

34) 중국에서는 도시의 최고 지도자를 당위서기라 부른다.

두만강문화 관광축제는 문화 예술인들의 장이다. 이들의 재능이 두만강에 펼쳐지고 두만강을 방문한 사람들이 보고 참여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전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며, 지역민의 문화 수준의 향상은 물론 관광수입의 증가와 함께 경제가 발전되는 것은 문화축제가 만들어내는 지역 속의 활기이자 에너지이다.

필자가 도문에 4년째 거주하며 두만강 축제를 만들면서 느끼는 것은 연변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잘 모르고 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특별히 '조선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 없이 가버리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두만강에 와서는 조금이라도 조선족을 알고 느끼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 또한 한국인으로서 한국 일반인들에게 조선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며 한국정부는 조선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동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히 한국 방송이나 영화 등에 나오는 조선족 비하의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필자가 중국 연변에서 4회째 문화축제를 이끌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조선족들의 한국인에 대한 반감이었다.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마치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반목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 조선족 사이에도 그러한 벽이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축제에서는 작게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장, 즉 화합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만강 축제는 두만강문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두만강 축제는 각 현시와 연결하여 연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조선민족문화를보존발전시키는노력을하여야할것이다. 두만강문화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예술가와 일반인이, 어른과 아이가,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만나는 연합의 장이 바로 이 두만강 축제가 될 것이다.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겸손함의 장이 또한 두만강 축제이다. 전문 예술가들이 몸을 낮추어 아마추어를 만나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주고, 정부의 고위영도가 자리에서 내려와 꿈을 꾸는 젊은이들을 만나는 등 많은 일들이 축제의 8일 동안 이루어진다. 짧은 축제를 위해 준비하는 1년 동안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펼쳐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두만강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한민족의 화합과 연합이 다른 소수민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앞으로 두만강축제가 더욱 더 겸손하게 위와 아래를 오가며 흐르길 바라는 마음이다.

## [별첨]

### 1) 두만강 문화의 개념

2012년 제3회 축제를 준비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만강 문화”로 잡았다. 2012년 축제를 통하여 두만강 문화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두만강 문화를 계승, 확산하는 것이 축제의 전체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만강 문화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야 했다. 그런 후에야 축제의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될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두만강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연구 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두만강 축제에서 2012년 초기 기획 시 설정한 두만강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1> 두만강 문화의 정의

1	생명성	살아있는 문화, 살리는 문화: 두만강은 중국 조선족의 어머니의 강이다. 중국 조선족 문화의 시작.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문화
2	역동성	고여 있는 문화가 아닌 흐르는 문화, 막힌 곳도 헤쳐나가는 강한 힘을 가진 문화: 이주역사로 시작된 중국 조선민족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광활한 중국땅에 성공적으로 정착, 중국 조선족 문화를 유지 발전시킴
3	목적성	장백산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흐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문화: 중국조선족문화를 시작으로 두만강변의 여러 나라 민족문화가 함께 어울려지고 발전하여 세계 속에서도 찬란한 고귀한 문화
4	다양성	만 갈래 물길이 한줄기로, 전통과 현대, 미래를 아우르며 미술, 음악, 연극, 무용, 과학 등 문화 예술의 전 영역
5	국제성	두만강 줄기를 따라 6개 나라가 어울려진 국제적인 문화: 중국, 조선, 러시아, 몽고, 한국, 일본 등 전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

### 2) 두만강 문화 개념에 따른 축제 프로그램 구성

5가지로 정리된 두만강 문화의 개념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2> 두만강문화개념으로 구성 된 프로그램

생명성	역동성	다양성	국제성	목적성
살아있는 문화, 살리는 문화	고여 있지 않고 흐르는 문화	만 갈래 길이 한 줄기로	두만강 줄기 따라 다양한 나라와 민족	바다를 향해 흐르는 문화
- 중국 연변 조선족문화의 전승 및 발전 - 연변의 젊 은 문화예술인 발굴 및 지원 - 문화예술 교	- 문화교류 프 로그램: -중국, 외국대학 생 워크샵 -문화예술인 협업 -학술 프로그램 확 대	-전통과 현대, 미래 -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의 전 영역으 로 확대하고 순 수과학, 학술	- 조선족, 만족, 한족, 중국, 일 본, 조선, 러시아, 몽고 한국 등 주변 민족 및 국가 참여 확대	-두만강에서 세 계로 뻗어 나가 는 문화: 국제예 술전 순회전시 -여름축제에서 겨울축제로 연결 -도시와 농촌과

육의 장으로써 축제 이후 지 속적으로 추진	-문화포럼 -문화예술포럼	분야로 점점 확대		의 연결로 함
-------------------------------	------------------	-----------	--	---------

### 3) 두만강축제 예술교육프로그램의 3가지 핵심전략

- a. 창의적 교육 및 발달에 좋은 차별화 된 교육프로그램:  
국내외 각 분야별 수준 높은 전문가들( 대학교수, 연구원등)초빙, 재능기부
- b. 다양한 교육 콘텐츠  
: 그림, 공예, 악기, 순수 과학 등 다양한 문화예술, 순수과학 분야
- c. 어린이와 선생님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재능전수가 가능하고 배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능, 재능 전수를 통해 축제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 4) 정부 협조 요청사항

두만강 문화를 기본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정리 개발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도문시 각 부서의 구체적 실행 요구사항과 협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다.<sup>35)</sup>

<표 3> 도문시 각 부문 협조요청사항

구 분	항 목	내 용
시정부	개막식	1. 영도 귀빈 참석자 범위 및 인원확정 2. 개식사 및 축사 대상자 선정 3. 개막식 좌석 지정 확정 4. 의전도우미 및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원
	폐막식	1. 영도 귀빈 참석자 범위 및 인원 확정 2. 폐회선언 대상자 선정 3. 의전도우미 및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원
축제사무국	준비,축제기간	협력
문체국	개막식	1. 도문시 가무단: 식전거리퍼레이드 협조 요청 2. 조선 공연이 안될 경우, 연변 가무단 공연요청
	두만강 뱃노래	1. 도문가무단 연원 제공 2. 연습장 제공
	두만강 나도스타	1. 본선장소사용 허가(본선 7월 7일 두만강극장) 2. 장소별 무대/음향/조명 등 시스템 및 엔지니어협조 3. 예선, 본선 사회자 제공
	비물질 한마당	1. 축제 참여 비물질 전수자 모집
	두만강	1. 회흔례 부부 섭외

35) 도문시 각 부문 협조요청사항 (참고 문헌 뒤 삽입문서1를 참고)

	복장쇼	2. 가무단연원모델인원제공 3. 소수민족 혼례복 수급
	예술아 놀자	1. 가무단 가도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악기 학생 교육을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
관광국	관광회사	1. 무대, 부스등 전원 연결 공작및 관리 2. 먹거리장터가 체험놀이와 국제예술전에 영향주지 않도록 운영 3. 축제기간 위생관리 4. 축제기간 보안관리
	홍보부스	1. 각 시현 및 관광관련 홍보 부스 참여 유도 및 운영 2. 도문관광지 홍보부스운영
선전부	개막식/ 폐막식	1. 사회자 시나리오 심사 및 허가 2. 공연 내용 심사 및 허가 3. 사회자 섭외 4. 연변방송 특음 방송 진행
	두만강 나도스타	1. 예선전 홍보 및 현장에서 축제 홍보 진행 2. 본선전 홍보(도문티비) 3. 결선 심사위원장 공식 요청 4. 우승자에게 제공할 혜택 정리
	국제 예술전	1. 참여작품 검토 2. 국제 예술전 도문티비 홍보
	사진전	1. 사진협회를 동원해 축제 기간 각 활동사진을 기록
	예술아 놀자	1.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교육국	개막식	1. 영도환영 행사 어린이 섭외
	뱃노래	1. 연습장소제공
	도문어린이 그림대회	1. 축제기념 도문어린이대회 개최 협조
	예술아놀자	1. 참여 학생 및 선생님 모집 2. 소년궁 3,4층 사용 협조
공안국	개막식/ 폐막식	1. 개막식 당일 행사장 주변 차량 통행 관리 2. VIP 주차장 관리 3. 좌석 폴리스라인 및 경호 4. 폭죽 허가증 발급
	국제 예술전	1. 국제예술전 전시 셋팅 및 운영 스텝 지원 2. 작품 설치 일~ 전시기간 중 24시간 보안 요청
교통국	개막식 폐막식	1. 개막식차량통행증 배포 및 축제전용차량 야간 운영
월 청	조선족 의식주체험	1. 축제 기간 중 농가락 운영 2. 축제 기간 공연 운영시 일정을 축제사무국에 제공
량 수 석 현 장 안	-	1. 축제 홍보부스를 이용해 각 현진의 관광코스과 특산물을 홍보한다. 2. 길거리 퍼레이드에 참여
위생국	개막식/폐막식	1. 축제 기간 중 구급차 1대 대기
소방국	개막식/폐막식	1. 축제 기간 화재예방 및 돌발상황처리 방안 및 실행
이 동, 련통회사	-	1. 개폐막식 및 축제 기간 통신 원할보장

## 5) 예술아 놀자

<표 4> 2013 예술아 놀자 프로그램 일정표

수업명	장르	선생님	교육일정	장소
한옥아 놀자	건축	연변과학기술대학 윤희상교수	8월 9일~14일 10:00~11:30/ 13:30~17:00	예술의 거리 1번 부스
연만들기	미술	한국 최미지선생님	8월 9일~14일 10:00~11:30/ 13:30~17:01	예술의 거리 2번 부스
그리며만들자	미술	캐나다 박숙희교수	8월 9일~14일 9:30~11:00 / 14:00~16:00	예술의 거리 3,4번 부스
물감아 놀자 바다그리기	미술	한국 안동 김재향원장	8월 10일~12일 9:30~11:00	분수대 옆 부스
물감아 놀자 페이스페인팅	미술		8월 10일~12일 14:00~15:30	
재미있게 그려보자	생각	한국의국어대 이영미 교수	8월 9일~14일 9:30~11:00 /13:30~15:00	제2소학교 1층
사진아 놀자	사진	한국의국어대 박병은 선생님	8월 9일~14일 9:30~11:00	제2소학교 1층
약기아 놀자	약기	한국뮤지스쿨 예민원장	8월 9일~13일 09:30~16:30	제2소학교 1층
공예아 놀자	공예	한국 김숙희원장	8월 10일~13일 9:30~11:30 /14:00~16:00	소년궁 2층로비
뮤지컬아 놀자	연극	한국 국민대학교 기정선 선생님	8월 9일~14일 9:30~11:30 /13:30~16:30	제2소학교 4층

### [참고문헌]

1. 김춘선주필<중국조선족 통독사, 하권> 연변인민출판사
2. 천수산 <중국 조선족 풍속> 민족출판사
3. 김정훈<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민족출판사
4. 황유복주필<중국조선족사연구2009>민족출판사
5. 리흥국 김호남 장희망주필 <중국 조선족 문화및 그 특색에 관한 연구>연변인민출판사
6. 김경훈 < 조선족예술 문화> 연변인민출판사
7. 황유복, 남룡해주필<개혁개방 30년 이래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발전> 민족출판사
8. 황유복, 류경재< 글로벌 코리아 경제문화 네트워크> 민족출판사
8. 이사벨라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도서출판 살림
9. 리혜선<두만강변의 총북마을 >민족출판사
10. 임영상 논문<동북 조선족 문화관과 한국사회의 협력> 재외한인학회
11. 김관웅< 력사의 강 두만강을 말한다. 상, 중> 연변인민출판사
12. 최수영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반도 경제> 통일연구원
13. 림금숙 <창지투 선도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과제> 통일연구원
14. 최희원 <북중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
15. 최명해외 <중국의 '두만강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2. 목단강의 조선족사회와 민족문화축제

김용선(한중법률신문)

### 3. 뉴욕의 한인사회와 축제

주동완(코리안리서치센터)

#### 1. 서론

흔히 ‘뉴욕 한인사회’라고 할 때, 그 공간적 범위는 맨하탄을 중심으로한 뉴욕시와 인근의 뉴욕주, 뉴저지주 그리고 커네티컷주 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한인사회를 일컫는다. 시간적 범위로는 1883년 조선의 최초의 서구사절단인 보빙사가 한인으로서 최초로 뉴욕을 방문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30년간을 말한다. 그 시간 속에서 11명의 조선 사절단이 약 50만 명의 한인 이민자 사회를 형성하였으며, 그 공간 속에서 한인 이민자들은 경제적인 부를 쌓아 왔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미국 주류사회 속에서 정치적 신장을 꾀하고자 노력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어 왔다. 즉, 뉴욕의 한인들은 지난 130년간 이민 생활에서의 정착과 나아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뉴욕 한인사회’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뉴욕 한인사회의 한인들은 힘들고 고달픈 이민 생활 속에서도 잠깐이마나 삶의 여유를 찾고 한인들 간의 단합과 친목을 위해 많은 문화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문화 활동은 개인적인 취미에서부터 동창회, 향우회, 지역, 직능단체들의 소규모 모임을 비롯하여 크게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미국 주류 사회에 알리고 한인 2세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가르치고자 하는 전체 한인사회의 축제로 발전해 왔다. 또한 그 축제도 이제는 뉴욕 한인사회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마당축제에서부터 퍼레이드와 골목축제 등과 같이 그 종류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뉴욕 한인사회의 축제들은 뉴욕 한인사회의 성장을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그 축제들의 내용들로부터 뉴욕 한인사회의 사회적 성격과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인 축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학술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축제들을 열고 난 뒤에 그 축제들에 대한 개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이나 보고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은 뉴욕 한인사회에서 개최된 축제들은 그냥 연중행사로 개최되어 왔을 뿐, 그 축제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은 부재했다고 여겨진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 축제 행사들에 대하여 그 의의와 역사들을 기록하고 그 진행 과정 및 행사 결과들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과 결과들은 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깊이 연구되어야 하며 해외에서의 민족문화 보존차원에서 그 자료와 영상 등의 자료로써 보존되어야 한다.

이 글은 먼저 이처럼 숫자와 규모가 늘어나고 그 종류 면에서 다양해진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한인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인사회 축제들에 대한 현황과 각 축제들의 역사와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그동안 행해져온 한인 축제들에 대한 많은 자료와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아 그 역사와 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불가능한 것이 아쉽지만 뉴욕 한인사회의 언론사 취재기록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인 사회의 축제에 대한 역사와 그 현황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뉴욕에서 28년간 뉴욕 한인의 한사람으로 생활해오면서 각 한인 축제에 참석해본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인 축제들에 대한 감상과 느낌 등을 서술하고 그러한 감상과 느낌을 토대로 하여 한인 축제들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축제 참가자가 아니라 그동안 뉴욕 한인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연구자로서 앞으

로 한인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그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객관적 자료의 부족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하지만 뉴욕 한인사회의 축제에 대한 최초의 글임으로 우선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서 본 글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또 글의 서술의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에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28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뉴욕 한 곳에서만 살면서 체득한 직접적인 참여관찰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논의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그 자료의 부족함을 대신하고자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학문적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II. 지역 현황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는 3억874만5,538명인데 이 가운데 아시아 또는 아시아계 혼혈인은 1,732만856명으로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과 같이 미국 내 인구 100만 명이상을 보유한 아시아인 인구현황을 보면 아시아인 가운데 한인 또는 한국계 혼혈인은 170만6,822명으로 미국 내 전체 아시아 인구의 9.9%를 차지했으며, 전체 미국 인구 중에서는 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한인 인구는 아시아인들 가운데 다섯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미국내 인구 100만 명이상을 보유한 아시아인 인구현황

순위	구분	인구수	(%)
총계	아시아 또는 아시아계인	17,320,856	100.0
1	중국인	4,010,114	23.2
2	필리핀인	3,416,840	19.7
3	인도인	3,183,063	18.4
4	월남인	1,737,433	10.0
5	한국인	1,706,822	9.9
6	일본인	1,304,286	7.5
7	기타	1,962,298	11.3

출처: The Asian Population 2010, 2010 Census Briefs, U.S. Census Bureau, March 2012.

<지도 1> 미국의 지역별 구분



출처: <http://blog.daum.net/americanworld/876>

또 미국을 4개의 지역별로 나누면 <지도 1>과 같이 북동부지역, 중서부지역, 남부지역 그리고 서부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한인 인구의 분포율을 보면 <표 2>와 같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서부지역이, 미국 내 전체 한인의 43.7%가 거주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을 중심을 한 미국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비율은 미국 내 전체 한인 인구의 약 20.5%를 차지하고 있다.

북동부지역의 한인은 미 동부 최대의 한인 밀집지역인 뉴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동부지역이 볼티모어, 워싱턴 D.C., 아틀란타 등의 한인 밀집지역을 갖고 있는 남부지역보다도 한인들의 거주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은 최근의 한인 이민자들의 정착유형이 각 지역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한인 인구는 2008년 현재 미국내 전체 한인 인구의 13.4%로 추정되었다.<sup>36)</sup> 이 추정치를 2010년에는 약 15%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하여 2010년 인구조사 결과로 계산해보면, 2010년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한인 인구는 약 25만6천 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7)</sup>

**<표 2> 미국의 지역별 한인 거주비율**

지역	한인들의 거주비율(%)
북동부 지역 (Northeast)	20.5
중서부 지역 (Midwest)	11.8
남부지역 (South)	24.0
서부지역 (West)	43.7

출처: The Asian Population 2010, 2010 Census Briefs, U.S. Census Bureau, March 2012. 18쪽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지도 2>에서 보듯이 뉴욕시 5개 보로(borough: 한국의 '구'와 같은 뉴욕시의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버겐 카운티(County: 한국의 '군'과 같은 미국의 행정단위)를 비롯한 뉴저지 북동부 지역과, 북쪽으로는 락클랜드와 웨체스터 카운티 등 뉴욕주의 몇몇 카운티를 포함하고, 북동쪽으로는 커네티컷주의 페어필드 카운티의 일부를 포함하며 동쪽으로는 미대륙의 대서양 연안을 따라 길게 뻗은 롱아일랜드의 낫소와 서푼카운티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맨하탄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에 위치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1일 생활권 지역들로서, 이 지역 인구는 2010인구조사에서 2천2백만 명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최대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sup>38)</sup> 이 수치는 미국인 15명중 1명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며, 2010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센서스 인구는 2000센서스 때보다 3.4% 증가한 것으로써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2천2백만 명의 미국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25만6천 명의 한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뉴욕 한인사회의 주장대로 50만 명이라 하더라도 전체 뉴욕 메트로폴리탄 인구의 2.3%에 불과하다.

**<지도 2>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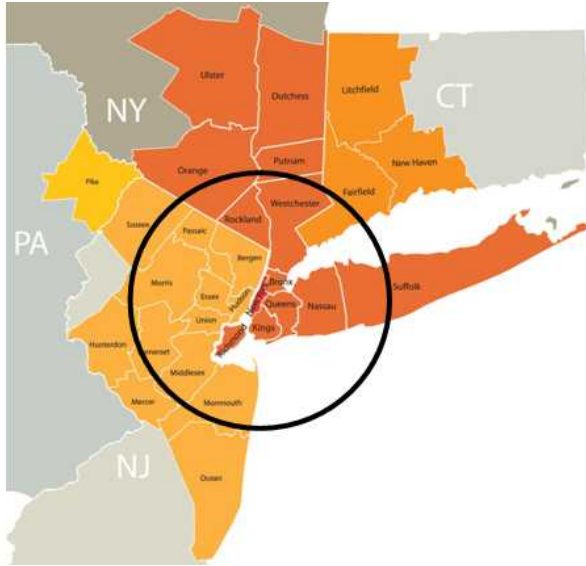
36) Pyong Gap Min and Chigon Kim, Growth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changes in their settlement patterns over time, 1990-2008, Research Center for Korean Community, Queens College of CUNY, (Research Paper No. 2), 14쪽, March 16, 2010.

37) 뉴욕한인회를 비롯하여 보통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한인 인구를 2013년 현재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38) 미국의 5대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인구현황

순위	메트로폴리탄 지역명	인구수(명)
1	뉴욕지역	22,085,649
2	로스 엔젤레스 지역	17,877,006
3	시카고 지역	9,686,021
4	워싱턴 D.C. 지역	9,331,587
5	샌프란시스코 지역	8,370,987

자료: 2010 Census, Combined Statistical Area (CSA) Population



\* 원으로 표시된 곳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내의 한인들의 밀집 거주지역  
출처: <https://static.selectleaders.com/static/images/real-estate-new-york-city.jpg>

### III. 뉴욕 한인사회의 축제 현황

뉴욕 한인사회는 한인 인구 숫자면에서 볼 때 1945년 이후 1950년대까지 주로 초기 유학생들로 구성된 약 150여 명정도에 불과했다. 이 때는 한인 유학생들은 주로 많은 한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던 컬럼비아 대학 주변과 비교적 거주비용이 저렴했던 브루클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당시 한인사회의 큰 행사로는 3.1절, 8.15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위주로 하여 맨하탄 80가에 있던 총영사관에서 행사를 치렀다.<sup>39)</sup>

이러한 뉴욕 한인사회의 형편은 1960년 6월 12일 뉴욕한인회가 설립되었던 당시만 해도 크게 변하지 않아 전체 한인이 4백여 명에 그쳤다.<sup>40)</sup>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는 가발업을 선두로 하여 한인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업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또 1965년 개정 이민법으로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합법화되면서 1970년대 초반부터 일기시작한 한인 이민물결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급팽창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뉴욕 한인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성격도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뉴욕 한인사회에 뉴욕한인회의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직종에 따른 많은 직능단체들이 형성되었다. 또 이러한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1960년대에는 3.1절과 8.15광복절 기념식, 야유회 그리고 연말 파티 정도의 규모였던 뉴욕 한인사회의 축제가 어느 정도의 조직과 규모를 갖추고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뉴욕 한인사회는 사회적 유대감이 강화되고 경제적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문화적으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속에서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더불어 한인사회를 미주류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이 지역 전체 인구의 1-2%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뉴욕 한인사회는 한국의 최대 명절가운데 하나인 추석을 기념하는 민족축제를 매년 3곳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맨하탄 한복판에서 개최되는 퍼레이드를 포함하여 2개의

39) 뉴욕한인회, [사반세기 뉴욕한인회], 1985, 27쪽

40) 위의 책, 54쪽

퍼레이드 축제를 개최해왔고, 2개의 마당축제와 1개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족축제 그리고 1개의 다문화 축제 등 총 9개의 크고 작은 민족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축제들을 주최자와 공식 명칭, 축제 시기와 장소 그리고 축제를 시작한 연도별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한인 축제 현황**

	주최자	축제명	개최시기	개최장소	시작년도
1	뉴욕한인청과협회	추석맞이 민속대잔치	9-10월	(1)플러싱 메도우즈 코로나파크 (2)시티필드 (주차장) (3)랜달스 아일랜드 파크	1982
		한국농특산물 종합박람회			1995
2	뉴저지한인회	뉴저지 추석대축제	9-10월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	2002
3	주최: 뉴욕한인회 주관: 뉴욕한국일보	뉴욕 코리아 퍼레이드	9-10월	맨하탄 브로드웨이선상 41가-28가	1980
4		야외장터축제		맨하탄 6 애비뉴선상 38가-28가 맨하탄 32가 선상 5애비뉴와 6애비뉴 사이	
5	롱아일랜드한인회	한미문화축제	7월	아이젠하워 파크	1994
6	롱아일랜드학부모연합회	추석대잔치	9-10월	먼지 파크 초등학교	2009
7	퀸즈한인회	설날 퍼레이드	2월	플러싱 다운타운	1980
8	퀸즈한인회, 먹자골목상인변영회	먹자골목 아시안축제	6월	플러싱 41애비뉴와 149스트리트	2013
9	원광한국학교	어린이민속대잔치	5-6월	(1)키세나 파크 (2)커닝햄 파크	1989

## 1.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민속대잔치

### 1) 뉴욕한인청과협회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축제는 뉴욕한인청과협회가 매년 9-10월중에 개최하는 ‘추석맞이민속대잔치’다. 뉴욕한인청과협회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주로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는 한인 청과상들의 모임이다. 2013년 제31회를 맞이하는 뉴욕한인청과 협회의 추석맞이민족축제는 뉴욕 한인 이민 사회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한인들이 뉴욕 사회 나아가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축제이다. 그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시키기 위하여 뉴욕한인청과협회 회원들이 뉴욕시 공원국을 비롯한 시당국과 뉴욕의 정치인들 그리고 모국과 협상하고 협력해 온 과정은 그 자체가 뉴욕 한인들의 이민 역사이다.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어 미국으로 합법적인 이민을 온 한인들은 초기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들이 미국에서의 5년 체류시한을 마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한국의 부모형제들을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한인 이민자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 6.25전쟁후 한국에 주둔해 있던 주한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이 3년의 미국 체류시한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내 가족들을 초청하기 시작하여 한인 이민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한인 시민권자들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온 대부분의 한인들은 미국생활에서의 정착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 막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단지 몇 백달러의 적은 정착금을 갖고 미국으로 이민 온 이들에게 유일한 밑천은 부지런한 근면성

과 자녀들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희생정신 뿐이었다.

특히 상업 도시인 뉴욕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당시 유행했던 가발 패들러(노점상)로 상업 활동을 시작하여 조금씩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인 들끼리의 경쟁으로 가발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사양산업이 되자, 한인들은 그동안 모은 약 간의 자본금과 같은 한인들끼리 조직한 계(契)를 통하여 사업자본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자본금을 갖고 뛰어난 업종이 청과업이었다. 당시 청과업은 주로 이태리계와 유태계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업종이었다. 이미 생활이 정착된 이태리계와 유태계인들이 직업 상승을 위해 청과업 청산을 고려하던 중이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이미 밀려드는 한인 청과상들 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많은 한인들은 모은 자본금으로 약간의 권리금(Key Money)을 주고 이들 이태리계와 유태 계 청과상 주인들로부터 그들의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한인들은 이태리계와 유태계 청과업소 인근에 다른 청과업소를 열어 이들과 경쟁하며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다. 청과업은 비즈니스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필요없는 단순한 노동집약적 업종이어서 한인 이민가정이 가족 전체가 나서서 꾸려 나가기에 안성맞춤인 비즈니스였다. 또 외상이 없 는 비즈니스라 현금 순환이 빨랐으며, 소기업 특성상 현금축적이 쉬었다. 비즈니스 성격상 특 별히 영어 장벽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부분 한인들의 청과업소가 흑인과 라티노계들 의 거주지인 중하층 지역에 소재하여 직업상의 위세(prestige)도 가질 수 있어서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 그나마 삶의 만족도도 높여줄 수 있었다.

특유의 근면성과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한인들은 청과업소 운영에 있어서 이태리계와 유태계 청과상인들보다 탁월했다. 그들은 헌츠 포인트 청과업 도매시장에서 주로 이태리계인 청과 도매업자들과 흑인계 청과 운송업자들의 모진 차별과 수모를 겪으며 새벽에 장을 봐서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구매하려고 노력했으며, 자신들의 가게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과 일과 야채를 더욱 싱싱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깨끗히 씻어서 잘 정리해놓고 손님들을 맞이 하였다. 더욱이 가게 문을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4시간 이상씩 열어두는 것은 보 통이고 규모가 큰 청과업소의 경우 24시간을 여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듯 생존을 위해 악착같 이 생업에 종사하는 한인 청과상들에게 이태리계나 유태계 청과상들은 경쟁 상대가 되지 못 했다. 그리하여 곧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청과업소는 대부분 한인들이 운영하게 되었고, 1980년 동안 약 3천여 개의 한인 청과업소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청과업을 장악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약 20년 간 한인 청과업의 성장 과정은 순탄한 것만은 아 니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무거운 과일과 야채상자 를 날라야 하는 중노동을 해야 했고, 야간에는 권총강도로부터 목숨을 잃는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인 청과업소들의 주고객층인 흑인 지역주민들과의 인종 갈등을 극 복해야 했고, 주고용인인 히스패닉계 라티노들과의 노동분쟁들을 해결해야 했으며 이태리계 백인 청과 도매업소 주인들로부터의 갖은 차별과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나아가 매년 치솟는 가게 렌트비로 때문에 이태리계와 유태계인 건물주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야 했으며 야채와 과일 등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비즈니스 성격상 뉴욕시 당국으로부터 발부되는 많은 티켓 과 벌금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처럼 뉴욕 한인 청과상들은 그들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4중고, 5중고를 겪었다.

하지만 흑인 소비자라 라티노 고용인, 백인 도매업자들과 건물주들 그리고 행정 당국들과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인 청과상들은 더욱 더 단결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갖은 노 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974년 설립된 뉴욕한인청과상초회였다. 뉴욕한인

청과상조회는 당시 청과업에 종사하던 50여 명의 한인 청과상이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취지에서 힘을 모으고 모두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졌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회원들의 외롭고 서글픈 이민생활에서 서로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해 '상조회'라고 했다가, 후에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어 '협회'로 개명하게 되었다.

## 2) 추석맞이 민속대잔치

뉴욕한인청과협회는 회원들의 권익과 친목도모를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뉴욕 한인사회를 위해 매년 추석맞이 민속대잔치를 개최해오고 있다. 1974년 뉴욕한인청과상조회가 설립되고 나서 상조회 활동이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인 1982년에 당시로서는 뉴욕 한인사회에서 최대 규모의 직능단체였던 뉴욕한인청과상조회가 뉴욕 한인사회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추석맞이 민속대잔치를 개최했다. 매년 9월 또는 10월경 뉴욕에서 한인들의 최대 밀집지역인 플러싱에 소재한 플러싱 메도우즈 코로나 파크(Flushing Meadows Corona Park)에서 개최되는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민속대잔치는 이제 뉴욕 한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뉴욕 일원 모든 시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었다. 특히 1996년 제16회 때는 제1회 모국 농특산물 뉴욕종합박람회가 함께 개최되어 6개도에서 온 90여 업체가 참가하여 우리 농특산물을 선보인 이후 추석맞이 민속대잔치는 한국 농산물과 더불어 공산품까지도 미국 주류사회에 선보이고 판매하는 장소와 기회가 되었다.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민속대잔치는 보통 9월 중하순경 또는 10월 초순경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다. 첫째날인 토요일 오전 11시에 농악팀의 흥을 돋구는 놀이연주와 함께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가 시작된다. 개막식에는 뉴욕 한인사회의 지도자급들 인사와 뉴욕시와 뉴욕주 때에 따라서는 연방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주뉴욕 한국총영사 등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진다. 무대 위에 모형으로 만든 '조상의 묘'앞에 상을 차려놓고 실제 차례를 지내며, 추석명절 때 차례를 지내는 시범을 보여준다. 이는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순서이다. 개막식이 끝난 후 '조상의 묘' 모형은 행사장 한쪽으로 옮겨져 축제에 참가한 관람객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고향을 찾은 것 같은 향수에 젖어 마음껏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 이어 태권도 시범과 전통무용 공연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제기차기, 널뛰기, 씨름 등 민속놀이가 개최되며 뉴욕 한인사회의 여러 음악과 무용단체들이 펼치는 국악 및 민속 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청소년들을 위한 힙합 페스티벌과 청소년 가요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어른들을 위한 동포 가요제와 장수만세와 같은 대회와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두번째날 저녁 무렵부터 시작되는 연예인 공연이다. 연예인 공연은 뉴욕 동포사회에서 활동하는 연예인과 모국에서 초청해오는 연예인들의 공연이다. 이 연예인 공연을 위해 청과협회의 행사준비팀은 4, 5월부터 한국을 방문하여 연예인 공연에 초청할 모국 연예인들의 섭외에 나선다. 초청되는 연예인들은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람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인기 연예인들이다. 덕분에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패티김, 태진아, 설운도, 인순이 등과 같은 인기 연예인들을 뉴욕 한인들은 매년 실제로 만나고 그들의 공연하는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한류의 열풍과 더불어 K-pop의 젊은 '아이돌'들도 초청된다. 동방신기, 2PM, 샤이니, 비스트, 포미닛, 시스타 등도 포함되어 한인 2세 청소년들에게는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추석축제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뉴욕 인근지역의 거의 모든 청소년들을 끌어오게 하는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K-pop 아이돌 그룹의 초청은 한국의 K-pop에 관심있는 타민족과 타인종 청소년들도 축제 참가를 부추기고 있다. 또 장사익, 김영임, 김태우, 마야, 소프라노 홍혜

경, 바리톤 려현구등과 같은 한국 전통 음악과 클래식 음악의 공연자들도 초청되어 문자그대로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41)

<사진 1>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민속대잔치의 2012년도 포스터



출처:

[http://www.mediakoreatv.com/bbs/skin/kima\\_gallery\\_03/view\\_img.php?file=data/event\\_poster/2012Festival.jpg](http://www.mediakoreatv.com/bbs/skin/kima_gallery_03/view_img.php?file=data/event_poster/2012Festival.jpg)(좌)

[http://www.mediakoreatv.com/bbs/skin/kima\\_gallery\\_03/view\\_img.php?file=data/event\\_poster/1345243878/2012Chuseok\\_Festival\\_sm.jpg](http://www.mediakoreatv.com/bbs/skin/kima_gallery_03/view_img.php?file=data/event_poster/1345243878/2012Chuseok_Festival_sm.jpg)(우)

추석잔치에서 모국 연예인들의 공연과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되는 변화는 연예인들의 멘트에 있다. 뉴욕 추석잔치 공연을 위해 온 연예인들은 무대에 올라와 뉴욕동포들에게 인사를 할 때, 90년대까지만 해도 뉴욕동포들을 위해 ‘위문공연’을 왔다고 하며 “그동안 머나 먼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나?”며 울먹거리려 관람객들의 향수를 달래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멘트로 인사를 하는 연예인은 비난과 조소거리가 된다. 뉴욕 동포들은 하루만이라도 모국의 연예인들의 공연을 보면서 즐기려고 추석잔치에 오는 것이지 그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뉴욕 한인사회가 문화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삶이 안정되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공연을 위해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온 연예인들의 피곤한 표정을 보면서 뉴욕의 한인들은 안스러워 하고 그럴수록 더 큰 박수와 성원을 보내주어, 모국에서 온 연예인들이 오히려 위로받고 더 큰 감동을 받아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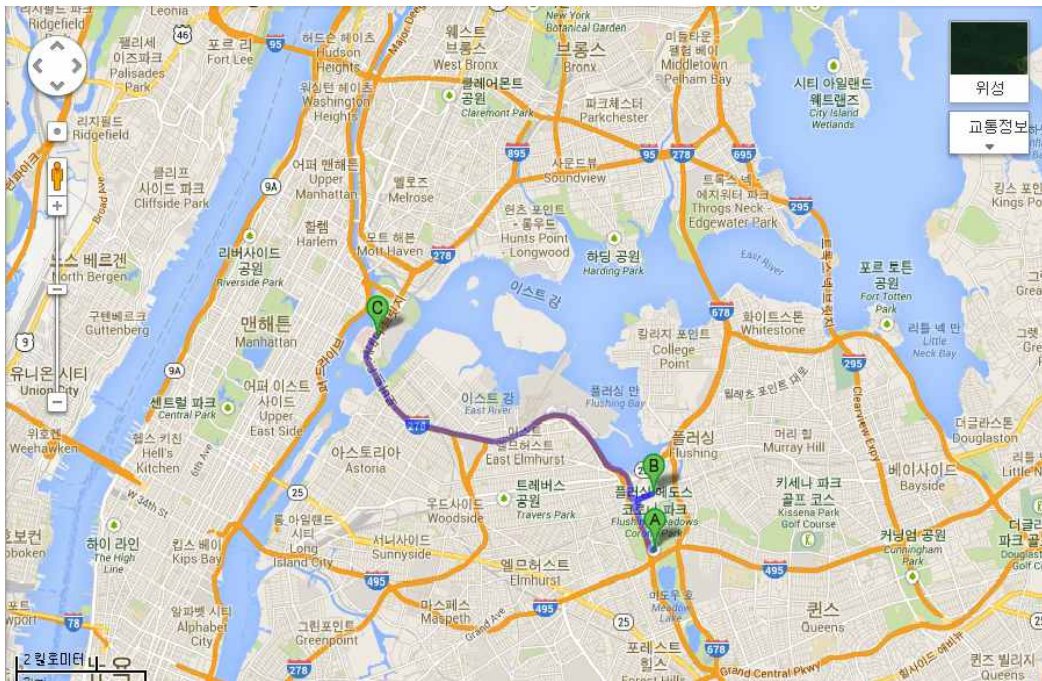
뉴욕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대잔치 축제는 전통적으로 한인들의 밀집 거주지역인 플러싱의 중심에 있는 플러싱 메도우즈 코로나 파크(Flushing Meadows Corona Park)에서 열렸다. 이 코로나 파크는 1964-65년 두 해에 걸쳐 세계박람회가 열렸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이 박람회는 뉴욕한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 박람회가 개최되던 해에 한국은 이제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경공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따라서 신생 공업

41) 울산뉴스투데이. 청과협회 주최, 제29회 추석잔치 프로그램 다양. 뉴욕일보 양호선 기자 보도. 2011. 8. 25

국가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한국의 상품을 외국 구매자들에게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 ‘한국관’을 만드는 등 대대적으로 박람회 개최에 참가하였다. 이 때 박람회의 ‘한국관’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300여 명의 준비요원이 파견되었다. 박람회는 2개년에 걸쳐 주로 여름기간에 2회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이때 파견되었던 준비요원들은 행사준비를 위해 주로 박람회 인근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도 약 200여 명의 준비요원들은 귀국하지 않고 뉴욕에 잔류하였는데 이들이 행사준비를 하면서 머물렀던 플러싱 지역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미동부지역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코리아타운을 만든 주역이 되었다.<sup>42)</sup> 플러싱 코리아타운의 역사가 시작된 곳에서 뉴욕 한인들이 이제 추석맞이 대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최근에는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축제의 장소가 <지도 3>에서와 같이 때와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도 했다.

<지도 3> 뉴욕한인청과협회 추석맞이 민속대잔치 개최장소



지도에서 A는 전통적으로 추석맞이 축제를 개최해온 플러싱 메도우스 코로나 파크이고 B는 뉴욕의 프로야구팀인 메츠(Mets)야구팀의 전용 야구장인 Citi Field가 있는 곳인데, 한 때는 이곳의 넓은 주차장을 축제 장소로 한 적도 있다. 또 최근들어 축제장소로 개발되어 자주 사용되고 있는 C는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Randals Island Park)라고 하는 곳이다.

Citi Field야구장 주차장이 축제 장소로 이용된 이유는 야구장 바로 옆에 맨하탄에서 플러싱까지 오가는 7번 지하철역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축제 장소에 오기 편한 점이 고려되었고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는 지리적으로 퀸즈, 맨하탄, 브롱스 등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어디에서나 오기에 편한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된 듯하다. 하지만 콘크리트 바닥인 주차장에서의 축제는 아무래도 삭막한 감이 없지 않고,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는 퀸즈와 브루클린 그리고 롱아일랜드 지역의 한인들이 불필요한 다리 통행료를 지불하는 부담과 협소한

42) 플러싱 코리아타운의 기원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도 있다. 주동완, 뉴욕 플러싱 코리아타운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연구, 임영상의, 코리아타운과 한국문화, 북코리아, 2012, 93쪽 참조.

파크입구 진입로 등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10만 명이상이 모이는 축제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전통적으로 개최 장소였던 플러싱 메도우즈 코로나 파크는 너무 넓어서 파킹장에서 행사장까지 15분이상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이는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뉴욕 한인들에게 큰 의미가 플러싱 메도우즈 코로나 파크에서 뉴욕한인들의 큰 제전이 추석맞이 민속대잔치 축제가 이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뉴욕추석맞이 대잔치를 ‘스토리’가 있는 하나의 큰 축제로 만들 수 있으며, 한인 2세들의 민족교육을 위해서나 외국인들의 더 큰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성공적인 문화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민속대잔치 행사장 구성은 보통 행사장 입구에 행사장소임을 알리는 전통 한국식 모양의 큰 대문이 서고, 대문 맞은 편에 중앙무대가 설치된다. 큰 대문 주변에는 장터가 개설되어 여러 가지 한국 민속품과 일반 가정용품이나 생활용품들이 판매되기도 하는데, 1995년 축제 때부터는 한국 농특산품 등도 전시 판매되기 시작했다. 한국 농특산품 판매는 한국의 각 도에서 나는 배, 사과 등 싱싱한 과일과 마른 곱감과 마른 채소와 야채, 가공된 김치, 고추장, 된장 등의 전통 한국음식과 음식재료 그리고 김, 미역, 멸치 등 마른 해산물과 각종 젓갈류 및 한국 꿀 등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특산물들은 생산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상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직접 판매를 하여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농산품뿐만 아니라 구두와 옷,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와 화장품 등의 공산품과 한국 전통 기념품 등도 출품되어 많은 한인 구매자와 외국인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 행사장 안쪽으로는 인근 한인타운의 여러 식당들과 각 사회단체에서 기금모금을 위해 마련한 먹거리 장터가 줄지어 있어서 축제에 구경은 참석자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있다. 먹거리 장터에는 주로 불고기와 갈비 등 즉석에서 구워지는 바베큐 요리에서부터 김밥, 떡볶기, 어묵, 라면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식 등이 마련된다. 그리고 음료로는 캔 음료와 한국의 전통적인 음료인 식혜와 수정과들도 있다. 단, 미국에서는 어느 공공 공원에서도 주류는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서 한국의 각종 전통주나 막걸리, 소주 등의 주류가 한국 전통축제에서 선보이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sup>43)</sup>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고 행사기금 마련을 위하여 복권이 판매되는데, 보통 복권 한 장 값은 5달러이다. 상품으로는 3-40달러하는 50파운드짜리 쌀이 100부대 이상 마련되기도 하며, TV,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과 골프채, 골프공 등의 스포츠 용품 그리고 최고 상품으로는 한국 왕복 항공권이 내걸린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라이온스 클럽과 한인 의사, 간호사 협회 등에서 마련한 텐트 안에서 혈압과 당뇨 등의 무료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인 사회내의 많은 비영리 단체들과 언론사에서는 자기 단체와 회사들의 홍보 목적으로 각종 기념품과 선물들을 마련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하여 축제 참가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한다.<sup>44)</sup>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민속대잔치는 이제 미 동부지역 최대 한인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등 인근의 주뿐만 아니라 멀리 보스턴과 워싱턴 등지에서까지 구경하고 참여하는 미주 한인들의 전통 민족축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이 축제에 많은 한인 입양아들도 미국인 부모들과 함께 나들이 나오고 있으며, 타인종, 타민족들도 구경뿐만 아니라 씨름과 같은 민속놀이에도 직접 참가하여 함께 즐기고 있다. 또 동부지역의 뉴욕의 조선족 동포

43) 미국 공원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어 있지만 간혹 물병에 물대신 소주를 담아와 몰래 즐기는

한인들도 가끔 있는데 이는 동 장소에서 지속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지양되어야 한다.

44) 울산뉴스투데이, 2011. 8. 25, 앞의 기사.

들도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대잔치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가해오다가 2005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뉴욕조선족동포회와 전미조선족동포회가 음식부스를 마련하여 참가해오고 있다. 축제에 참가한 조선족 동포들은 양고기뿔, 잡채, 족발 등 조선족 특색의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변가무단의 가수출신들도 공연과 장기대회 등에 나와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이렇듯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민속대잔치는 세대를 이어 한국문화를 이어가고 인종과 민족을 넘어 뉴욕의 시민들이 대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사진 2>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민속대잔치의 모습 1



매년 10만명 이상 모이는 뉴욕 추석맞이 민속대잔치(상) 아름다운 한국문화의 백미인 부채춤 공연(하좌) 민속대잔치에서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씨름대회.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여성부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하우)  
출처: 뉴욕일보 [http://www.newyorkilbo.com/sub\\_read.html?uid=8631&section=sc110](http://www.newyorkilbo.com/sub_read.html?uid=8631&section=sc110)

<사진 3>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민속대잔치의 모습 2





전문가들에 의해 설치된 중앙무대와 한국 아이돌 그룹의 공연 모습(상)  
태권도 시범공연(하좌) 최근 활발해진 뉴욕 거주 조선족들의 참여(하우)  
출처: 뉴욕일보 [http://www.newyorkilbo.com/sub\\_read.html?uid=8631&section=sc110](http://www.newyorkilbo.com/sub_read.html?uid=8631&section=sc110)  
뉴욕조선족통신 <http://www.nykca.com>

## 2. 뉴저지한인회의 뉴저지 추석대축제

뉴저지주의 한인사회는 뉴욕 맨하탄에서 죠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면 바로 들어서게 되는 뉴저지 북동부지역의 포트 리(Fort Lee)를 중심으로 1980년대 초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주로 맨하탄과 뉴저지 인근에 들어서기 시작한 한국계 회사들의 주재원들이 거주하면서 한인 상가와타운이 발전되었다. 지금은 뉴저지 한인타운이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등 인근타운으로 확대되어 완전한 코리아타운을 형성했으며, 한인들이 밀집한 각 타운별로 한인 정치가들과 시장 등을 배출하여 뉴욕 플러싱 코리아타운보다 더 내실있는 한인타운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지만 뉴욕의 상징성때문에 뉴저지 한인들과 한인사회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해 왔다. 그동안 미동부지역의 모든 주요 한인 행사들은 뉴욕에서 치러졌으며, 뉴저지는 부러움 반 질시 반으로 구경꾼의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 뉴욕 플러싱에서 한인 행사들이 벌어질 때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차를 운전하고 죠지 워싱턴과 화이트 스톤이라는 2개의 큰 다리를 왕복 25달러 이상의 통행료를 지불하며 와야 했다.

1975에 창립된 뉴저지한인회가 있었지만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민속대잔치와 같은 대형 축제를 기획하기에는 2002년 제1회 뉴저지한인회의 추석대잔치가 개최되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2002년 뉴저지 한인회주최로 제1회 뉴저지추석대잔치가 뉴 오버팩 공원(<지도 4>에 A로 표시)에서 개최되었다. 뉴저지 한인회는 미국 속에 한민족의 열과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우수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자라나는 2세 3세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sup>45)</sup> 라고 뉴저지추석대잔치의 개최 의의를 말하고 있으며 매년 9월과 10월중에 주말을 이용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개최해오고 있다

뉴저지추석대잔치도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민속대잔치와 비슷한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상 뉴저지의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히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인뿐만 아니라 타 민족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로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뉴저지장로교회에서 후원하고 개최하여 매년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고 있다.<sup>46)</sup> 뉴저지추석대잔치의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것은 ‘가을밤 열린음악회’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클래식 음악가나 가수들 또는 한국의 수준급 전통무용단의 공연과 사물놀이패

45) 뉴저지한인회 웹사이트, <http://www.njkorean.org/x/?mid=event001>

46) 뉴저지한인회 웹사이트, <http://www.njkorean.org/x/?mid=event001>

등이 초청 공연되고 있다. 이밖에도 풍물놀이, 전통무용, 동포노래자랑, 제기차기, 축기대회, 태권도시범, 훌라후프경연대회, 재즈공연, 한가위전통미인대회 등 알찬 내용으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의 의미를 한인들과 타민족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sup>47)</sup>

<지도 4> 뉴저지 추석대잔치 개최 장소



<사진 4> 뉴저지한인회의 추석대잔치



47) 뉴저지한인회 웹사이트, <http://www.njkorean.org/xs/?mid=event001>



출처: (포스터) [http://www.njkorean.org/x/?document\\_srl=10777/](http://www.njkorean.org/x/?document_srl=10777/) (사진) 뉴저지한인회  
출처: 뉴욕일보 2012년도 뉴저지 추석대잔치  
[http://www.newyorkilbo.com/sub\\_read.html?uid=29145&section=sc110](http://www.newyorkilbo.com/sub_read.html?uid=29145&section=sc110)

### 3. 롱아일랜드의 ‘한미문화축제’와 ‘추석대잔치’

롱아일랜드는 맨하탄 동쪽편에 대서양 연안을 따라 남북길이 37Km, 동서길이 190Km에 이르는 제주도 크기의 약 2배에 달하는 길게 뻗은 큰 섬이다. 롱아일랜드 섬의 서쪽편에 위치한 퀸즈와 브루클린 카운티는 뉴욕시에 속해 있으며, 동쪽편의 낫소와 서푼 카운티는 뉴욕주에 속한다. 흔히 뉴욕의 한인들은 롱아일랜드라고 하면 낫소와 서푼 카운티를 일컫는다. 낫소와 서푼은 비교적 안정적인 백인들 위주의 교외 주거지역들로서 교육환경이 좋아 한인을 비롯한 중국인, 인도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뉴욕시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한인들이 자녀 교육과 안락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이주하기를 원하는 1순위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롱아일랜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뉴욕시에 거주하던 많은 한인들과 새롭게 한국에서 바로 이주 또는 유학온 한국인들로 곳곳에 한인들의 밀집 거주지역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한국 식품점, 식당 등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곳곳에 한인 여성들의 주력업종인 네일살롱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대형 교회들도 들어서 있다.

그동안 롱아일랜드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한인들이 이주해 왔지만 한인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지역의 주민들은 백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백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입김이 센 곳이어서 그동안은 롱아일랜드에서 한인들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그러나 1993년 4월 1일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결성되면서부터 롱아일랜드의 한인들은 한인들의 목소리를 카운티 정부당국에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카운티 정부의 지원과 한인 단체 자체만의 힘과 노력으로 롱아일랜드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들도 개최하고 있다.

먼저 롱아일랜드는 협회 결성 다음해인 1994년부터 ‘한미문화축제(Korean American Nigh)’를 개최했다.<sup>48)</sup> 낫소카운티 정부는 카운티내의 각 소수민족들의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카운티내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서로의 문화소개를 통해 각 민족들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낫소카운티 정부가 나서서 각 소수민족들의 축제를 주최하고 있다. ‘한미문화축제’도 이러한 카운티 정부의 정책중의 하나로 낫소카운티 정부가 주최하고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주관을 하는 행사라는 점이 다른 뉴욕의 한인축제들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낫소카운티 정부가 주최하는 이 소수민족 축제 행사들에는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도 와서 함께 축제를 구경하고 즐기고 있다.

매년 7월 롱아일랜드의 아이젠하워 파크의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한미문화축제는 주로 한국 음악과 무용 등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을 펼쳐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8)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50년사, 2010, 213쪽.

최근에는 열풍이 불고 있는 한국 인기 연예인들과 롱아일랜드 한인 청소년들의 K-pop 공연으로 많은 한인 청소년들의 축제 참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롱아일랜드 거주 타민족 주민들과도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어 가고 있다.<sup>49)</sup> 몇몇 한인 식당과 단체들이 준비한 불고기, 갈비 바베큐 등 간단한 한국 음식 판매대가 마련되고 몇몇 한국 상품이나 기념품 판매점이 행사장 뒷편에 임시로 만들어지지만 전체 행사가 토요일 오후 4-5시간 정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대 판매점들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한국음식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지역 주민들이 공연을 보러왔다가 한국음식도 많이 즐기고 있다. 또 다른 롱아일랜드의 한인 축제로는 롱아일랜드 한인학부모연합회(KPALI)가 주최하는 추석대잔치(Korean Harvest Moon Festival)가 있다. 롱아일랜드 학부모연합회는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롱아일랜드의 그레이트 넥, 맨하셋, 해릭스, 위틀리, 제리코, 포트 워싱턴 등의 각 지역 한인학부모회가 연합하여 이 지역들의 한인 학생들의 교육과 학부모들간의 네트워크를 위해 2009년 3월 30일 창립되었다.<sup>50)</sup> 연합회는 매년 9월 또는 10월에 맨하셋에 소재한 먼시초등학교(Munsey Elementary School)에서 약 5시간 정도에 걸쳐 개최되는데, 한인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되는 행사라서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추석잔치라는 점이 타지역 축제들과 다르다.<sup>51)</sup> 따라서 행사프로그램에도 한인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며, 그때그때 한인 커뮤니티의 주요 이슈가 된 문제들에 대한 한인 청소년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예를 들면 2009년 제1회 추석대잔치에서는 당시 한국과 뉴욕 한인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동해와 독도 문제를 한인 청소년들에게도 널리 홍보하고 많은 한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동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롱아일랜드의 추석대잔치 행사는 주로 초등학교의 강당을 주무대로 하여 전통혼례식이 특색 있게 치러지며 한복 패션쇼와 연예인 초청공연, 주부, 가족, 청소년들의 장기자랑과 음악 경연대회 등이 펼쳐진다.<sup>52)</sup> 강당 밖의 복도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김치담그기, 떡 메치기 등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건물밖 운동장과 체육실에는 바베큐 한국 음식 판매대도 마련된다. 롱아일랜드의 추석축제는 초등학교를 빌려 5시간 정도 치러지는 행사인만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나 학부모와 한인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라는 점에 개최의 의의가 있다. 특히 카운티 장이나 시의원들과 교육 학군의 교육감과 교장, 교사들이 초청되어 교육적으로 알차게 치러지고 있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지역 교육관계자들에게 한국문화와 한인사회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학군들의 교육가들에게 우수 교육자상을 수여하고 우수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원금도 지급하여 한인 지역사회와 학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주류사회에 한인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축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53)</sup>

49) 뉴욕중앙일보, K-Pop과 함께하는 ‘한미문화축제’, 2012. 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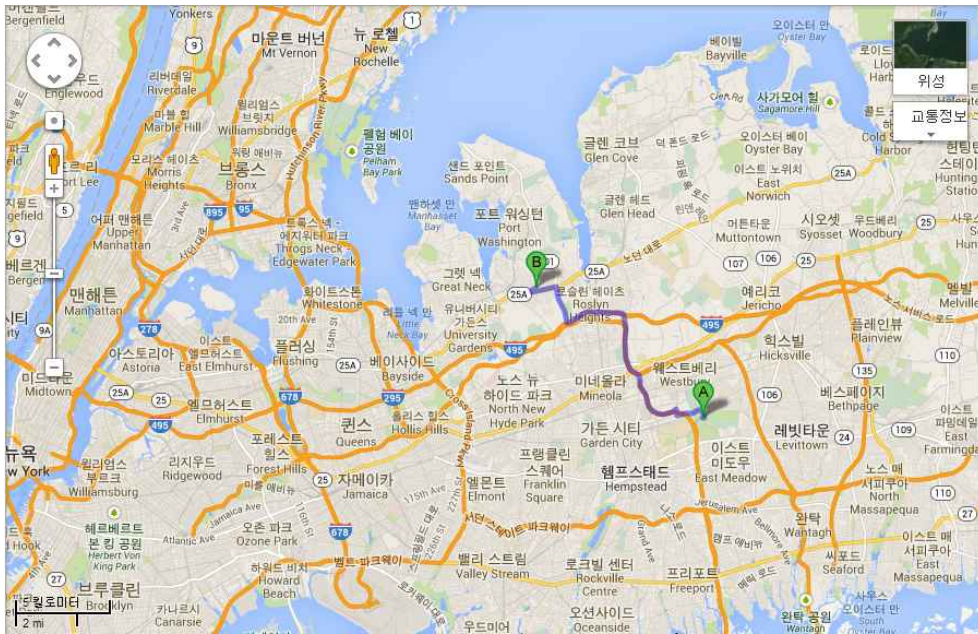
50) 뉴욕중앙일보, 낯소한인학부모연합회 출범, 2009. 3. 31.

51) 뉴욕한국일보, LI서도 추석대잔치 열린다. 2009, 10. 10.

52) 롱아일랜드 한인학부모 연합회 웹사이트, <http://www.kpali.org/event.php>

53) 뉴욕중앙일보, 롱아일랜드 추석잔치 9월 개최, 2010. 6. 26.

<지도5> 롱아일랜드의 한인축제 장소



A는 롱아일랜드 한민회가 주최하는 '한미문화축제' 장소인 아이젠하워 파크  
B는 롱아일랜드 한인학부모연합회가 주최하는 '추석대잔치' 장소인 먼지초등학교

<사진 5>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



출처: (사진) 뉴욕중앙일보, 2010. 7. 27  
(포스터) <http://blog.daum.net/ljojo53/7628897>  
<사진 6> 롱아일랜드학부모연합회 추석대잔치



출처: (포스터) <http://www.njktown.net/news/article.html?no=596>  
(사진) 뉴욕한국일보, 2011. 6. 30

#### 4. 뉴욕한인회의 코리안 퍼레이드와 야외장터축제

1960년 창립된 뉴욕한인회는 유학생들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뉴욕지역 한인들의 모임을 한 인사회 전체의 활동으로 발전시키고 뉴욕 한인들의 비즈니스 활성화와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뉴욕의 한인 2세들과 미국 주류사회 속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한인회는 1980년 제16대 한인회를 이끈 박지원 뉴욕한인회장 재임기에 맨하탄에서 코리안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코리안 퍼레이드의 주회는 뉴욕한인회지만, 퍼레이드를 주관하는 것은 퍼레이드 조직과 운영을 위한 노하우와 홍보 능력을 갖고 있는 뉴욕한국일보가 주관해왔다.

당시만 해도 뉴욕 한인들에게 퍼레이드는 생소한 것이었다. 더구나 한국문화는 장터와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마당놀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긴 도로를 따라 늘어선 행진하며 보여주는 퍼레이드 놀이문화가 아니다. 특히 퍼레이드는 우선 상당한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고, 주변에 퍼레이드를 구경나온 사람들에게 동적으로 움직이며 볼거리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행진하는 순서에서부터 퍼레이드에 동원되는 차량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막 한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1980년도에 그것도 세계의 중심인 뉴욕의 맨하탄에서 더구나 맨하탄의 가장 주된 거리인 브로드웨이에서 한인 퍼레이드를 개최하기로 한 뉴욕한인회의 결정을 우선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여겨진다.

뉴욕 맨하탄의 브로드웨이를 굳이 한인들이 행진하는 퍼레이드 코스로 정한 것은 그 당시 발전하고 있던 뉴욕 한인사회에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그 당시 많은 뉴욕의 한인들은 1970년대에 가발을 비롯한 잡화와 장신구 등의 판매 소기업에 종사했는데, 이들의 소기업 활성화와 발전은 맨하탄 34가에서 24가에 이르는 브로드웨이 선상의 많은 한인 도매상들의 발전을 가져 왔으며, 도매상의 활성화는 다시 이러한 직종의 소매상들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남부나 중서부 지역의 한인들의 소매상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플러싱을 근거로 한 뉴욕의 코리아 타운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의 많은 한인들이 브로드웨이에 산재해있던 한인 도매상가들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어서 맨하탄 32가와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뉴욕 한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부를 쌓은 한인들이 그들의 어려웠던 과거를 되살리며 성공적인 오늘날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퍼레이드를 개최하는데 이 브로드웨이만큼 의미 있는 장소는 없었다.

퍼레이드 개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미숙하였지만, 일치단결된 한인들의 마음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러져 뉴욕 시민들에게 한인사회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의 모든 다민족, 다인종들이 모여 사는 뉴욕 맨하탄에서 대로를 막고 퍼레이드를 펼친다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력과 인원동원 능력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인 실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아직 완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전에 뉴욕 한인사회가 맨하탄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거의 죽어있는 브로드웨이 상가를 활성화시킨 한인들과 한인사회의 공을 뉴욕시가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1981년 2회 퍼레이드 때는 에드워드 카치 뉴욕시장이 그랜드 마살로 퍼레이드의 선두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도<sup>54)</sup> 결코 우연이 또는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매년 행사내용이 발전하여 제24대 한인회(이정화 회장) 재임기인 1995년 9월 30일 열린 제 16회 코리안 퍼레이드 때는 내용이 더욱 알차졌고 새로운 것이 많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궁중의상 행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한국유치 홍보행진, 다민족 화

54) 뉴욕한인회. 뉴욕한인 50년사, p. 97

합 퍼레이드가 돋보였다.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이 날을 한인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sup>55)</sup> 제29대 이경로 회장은 임기동안 한국 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한국정부로부터 뉴욕한인 문화엑스포 예산 5억원(당시 환율로 53만달러)을 지원받았다. 이경로 회장은 추석을 전후하여 집중되어 있는 뉴저지한인회 주최 추석잔치, 청과협회 주최 추석맞이 민속대잔치, 한인회 주최 코리안 퍼레이드를 한데 묶고 다른 한인문화행사를 추가시켜 뉴욕한인문화엑스포로 대형화시켜 한국문화를 미국에 자랑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회장은 이를 위해 한국 문화관광부와 국회의 여로와 접촉,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2006년 12월 26일 열린 제264회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sup>56)</sup>

이렇게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제30대 한인회의 코리안 퍼레이드는 어느 다른 해보다 다채롭게 진행됐다. 2007년 코리안 퍼레이드때는 서울에서 전통 여가행렬과 취타대가 초청되어 왔고 2008년 제28회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대형 거북선 모형이 선보여 퍼레이드를 구경나온 많은 외국인들을 경탄시켰다.<sup>57)</sup>

보통 코리안 퍼레이드는 10월중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개최되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 행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준비관계로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2-3시간 전부터 행사장에 나와 준비를 해야 한다. 퍼레이드 준비는 맨하탄 38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전에는 브로드웨이를 따라 남쪽으로 행진했지만, 최근에는 브로드웨이 옆길인 6애비뉴를 따라 28가까지 약 10블럭을 행진하고 있다. 34가에서 40가에 이르는 6애비뉴도 뉴욕의 한인들에게는 중요한 지역인데, 고층건물들이 즐비한 이 지역은 '가먼트스트리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의류생산 지역이다. 지난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많은 한인 봉제업소들도 이 지역 건물들에 입주하여 많은 의류를 생산했는데, 특히 남미로 이민갔다가 다시 미국 뉴욕으로 이민온 남미출신 한인들이 의류생산업에 많이 종사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맨하탄 코리아타운의 중심인 5애비뉴와 6애비뉴 사이의 32가에 마련된 야외장터에 모여 오후부터 야외장터축제가 시작된다. 한 블럭의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도로 한복판에 야외 임시무대를 가설하고 길 양편으로는 먹거리 장터를 위한 천막들이 줄지어 설치된다. 야외무대에서는 한국무용과 노래들의 공연이 진행되며, K-pop도 소개되어 많은 한인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흥을 돋운다. 여러가지 한국산 특산물과 기념품, 공산품 등도 전시 판매된다.

---

55) 위의 책. P. 118

56) 위의 책. P. 140.

57) 위의 책. P. 142-143

<지도 6> 뉴욕한인회의 코리안 퍼레이드와 야외장터 축제 장소



(점선) 이전에 코리안 퍼레이드가 열렸던 브로드웨이 (실선) 현재 코리안 퍼레이드가 열리는 6 애니뷰 (원) 코리안 퍼레이드가 끝난 후 '야외장터축제'가 열리는 맨하탄 32가 코리아 타운 중심지.

<사진 6> 뉴욕한인회의 코리안퍼레이드 사진들



①

②



③

④

출처: ①뉴욕한국일보, 2012.10.8., ②뉴스로, ③뉴시스, 2007.10.7. ④맨하탄 32가에서 펼쳐진 '야외장터축제' 모습, 뉴욕한국일보, 2011.10.3.

## 5. 퀸즈한인회의 설날 퍼레이드

퀸즈한인회는 뉴욕시 5개 보로 중 한인인구가 가장 많은 퀸즈의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지역 한인회다. 이전에는 퀸즈지역에 1980년 창립한 플러싱한인회와 엘머스트, 우드사이드 한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생적으로 발족한 중부퀸즈한인회가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한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여, 두 한인회는 2008년 하나로 통합하여 퀸즈한인회로 거듭났다. 퀸즈한인회는 현재 퀸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40개 한인단체 대표들이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 및 집행부가 함께 협력, 화합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퀸즈한인회는 퀸즈지역 한인이민자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단체들의 활동을 후원하고 문화, 교육, 의료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중간 역할을 통해 지역한인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58)</sup>

이러한 퀸즈한인회 활동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매년 설날을 맞이하여 2월에 플러싱중국상인번영회(FCBA)와 공동으로 플러싱 중심가에서 설날퍼레이드를 개최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플러싱 지역에 중국인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설날을 대부분 중국설날(Chinese New Year)로 알려져 있었는데, 당시 플러싱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설날의 명칭을 음력설날(Lunar New Year)로 바꾸고 이를 널리 주류사회에도 알리기 위해 플러싱중국상인번영회와 함께 설날 퍼레이드를 개최해 왔다. 설날 퍼레이드가 시작된 1980년대에는 플러싱의 한인들이 숫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인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한인들의 퍼레이드 참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급팽창한 플러싱의 중국인들의 위세에 눌려 설날퍼레이드에 한인들의 참여는 간헐적이 되어버렸다.

2008년에 퀸즈지역의 지역한인회들이 퀸즈한인회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설날퍼레이드에 한인들의 힘을 모아 다시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특히 퀸즈를 중심으로 뉴욕 인근에 산재해있는 600여 개의 한인 교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있었으며, 퍼레이드 후에는 인근 한인 식당들에서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 무료 떡국을 제공하는 등의 아이디어도 등장해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유도했다.<sup>59)</sup> 그 결과 2013년에는 한인과 중국인들의 자존심 대결로 사상 최대 규모로 퍼레이드가 열렸다.

설날퍼레이드는 보통 수적 적은 한인들의 행렬이 앞서고 중국인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며, 플러싱의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 지역의 중심도로를 약 1시간가량 행진한다.<sup>60)</sup> 퍼레이드 후에는 인근 한인식당들에서 제공하는 무료 떡국잔치가 있고, 이어 플러싱 고등학교 강당에서 한국문화 공연으로 이어진다. 한국문화 공연에는 뉴욕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한인 음악 및 무용단체와 기관들이 참가하여 공연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도 곁들여 진다. 2013년 한국문화 공연에는 2012년에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싸이의 '말춤'경연대회도 열려 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도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미주류사회에서의 관심을 끄는 공연이 되었다.

58) 퀸즈한인회 웹사이트, <http://www.kaa.org/index.php?mid=P02>

59) 기독교일보 New York, 2012년 1월 3일.

60) 뉴욕중앙일보, 2013년 1월 29일.

<지도 7> 퀸즈한인회의 설날퍼레이드 장소



(1) 까만색 화살표는 설날 퍼레이드 행진코스. (2) S는 퍼레이드 출발지점 (3) 빨간색은 한인들의 퍼레이드 준비 장소. 파란색은 중국인들의 준비 장소. (4) 1번은 퍼레이드 후 무료 떡국잔치를 여는 '금강산' 식당. 2번은 퍼레이드 후 한국문화공연이 열리는 플러싱 고등학교

<사진 7> 퀸즈한인회의 설날퍼레이드 사진



①



②



③

출처: <http://nyckcg.org/bbs.asp?chkgp=bbs&chkstat=c&chkmod=vwdone&seqno=1332&selYear=2013>  
 뉴욕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550235&ctg=1300](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550235&ctg=1300)  
 뉴욕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4&branch=NEWS&source=&category=lifenleisure&art\\_id=990726](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4&branch=NEWS&source=&category=lifenleisure&art_id=990726)

## 6. 원광한국학교의 뉴욕 어린이 민속 큰잔치

뉴욕 어린이 민속 큰잔치는 뉴욕 플러싱에 소재하는 원불교의 원광한국학교에서 한인 어린이들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어린이 축제이다. 원광한국학교는 “깨끗하게, 슬기롭게, 바르게”라는 교훈아래 “뉴욕지역에서 자라나는 한국의 후예들에게 한국 고유의 글과 문화를 알리고 열을 심어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곳 미국생활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가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82년에 설립되었다.<sup>61)</sup>

원광한국학교에서는 한인 2세들에게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며, 타민족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1989년부터 원광한국학교 민속잔치를 개최했다. 처음에는 원광한국학교 교내행사로 시작된 이 행사는 1997년부터 뉴욕 전 지역에 있는 한인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축제 행사로 확대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은 키세나 파크라는 타운의 작은 공원에서 개최해왔는데 참가자들이 2-3천 명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커닝햄 파크라는 시립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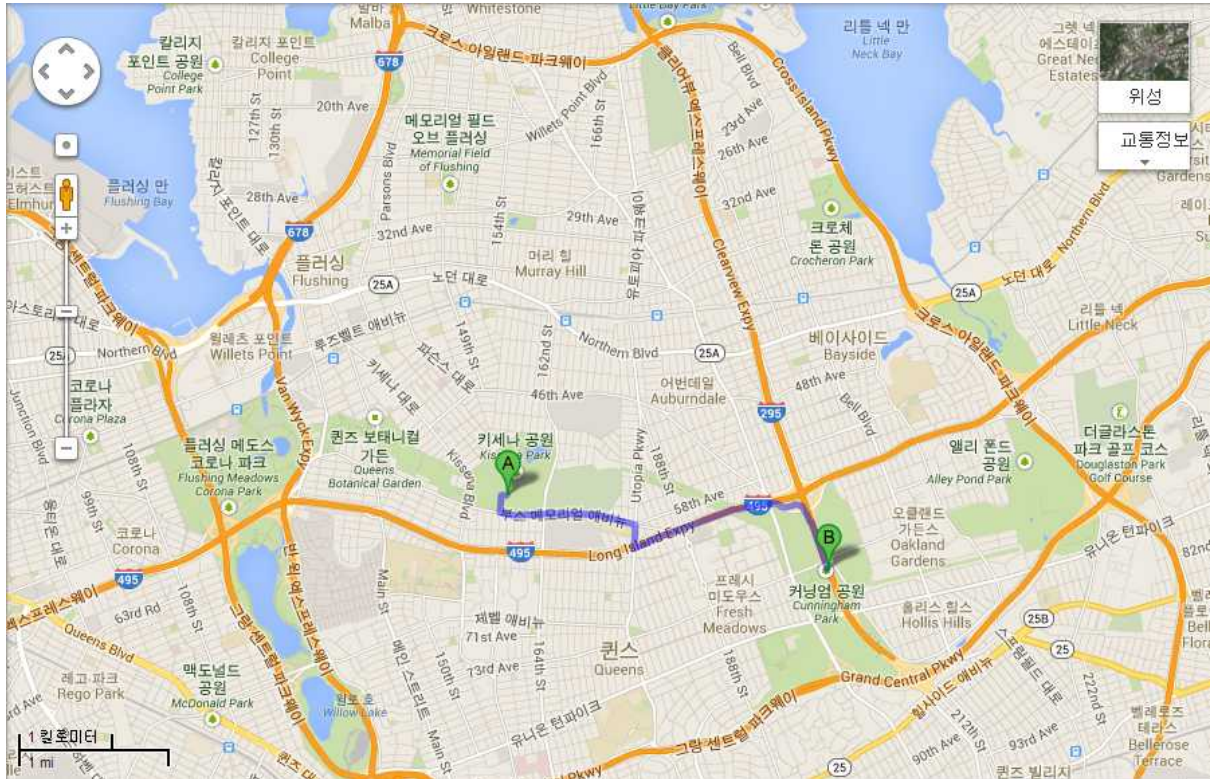
원광한국학교의 뉴욕 어린이 민속 큰잔치는 5월 또는 6월중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투호, 딱지치기, 굴렁쇠 굴리기, 씨름, 널뛰기, 귀신·잡신 쫓기, 제기차기, 탈 만들기, 긴줄넘기, 방석놀이 등 20여 가지에 이르는 각종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예절마당, 태권도마당, 국악마당, 전통생활 체험 마당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특히 예절마당에서는 한복 입는 법과 절하는 예절을 가르쳐 준다.<sup>62)</sup> 또 2013년에는 K-pop 컨테스트도 열렸는데 한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K-pop에 관심 있는 많은 외국인 청소년들도 참가하여 한국말로 한국가수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한인 입양아를 비롯하여 타인종, 타민족 청소년들도 많이 참석하여 함께 즐기는 뉴욕에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는 큰 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008년에 퀸즈지역의 지역한인회들이 퀸즈한인회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설날 퍼레이드에 한인들의 힘을 모아 다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원광한국학교의 뉴욕 어린이 민속 큰잔치는 5월 또는 6월중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투호, 딱지치기, 굴렁쇠 굴리기, 씨름, 널뛰기, 귀신·잡신 쫓기, 제기차기, 탈 만들기, 긴줄넘기, 방석놀이 등 20여 가지에 이르는 각종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예절마당, 태권도마당, 국악마당, 전통생활 체험 마당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특히 예절마당에서는 한복 입는 법과 절하는 예절을 가르쳐 준다. 또 2013년에는 K-pop 컨테스트도 열렸는데 한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K-pop에 관심 있는 많은 외국인 청소년들도 참가하여 한국말로 한국가수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하였다.<sup>63)</sup> 최근에는 한인 입양아를 비롯하여 타인종, 타민족 청소년들도 많이 참석하여 함께 즐기는 뉴욕에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는 큰 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61) 원불교 뉴욕교당 웹사이트, <http://nywonbuddhism.org/nywb/wkks/>.

62) 뉴욕일보, 원광한국학교, 제15회 뉴욕어린이 민속 큰잔치, 2011년 6월 6일

63) 뉴욕중앙일보, 원광한국학교, 어린이 큰잔치, 2013년 6월 10일

<지도 8> 원광한국학교의 뉴욕 어린이 민속큰잔치 장소



A는 초창기부터 뉴욕 어린이 민속큰잔치가 열렸던 키세나 파크  
 B는 최근들어 참가자들이 증가하면서 뉴욕 어린이 민속큰잔치가 개최되기 시작한 커닝엄 파크

<사진 8> 원광한국학교의 뉴욕 어린이 민속큰잔치 사진



출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759311](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759311)

## 7. 퀸즈한인회의 먹자골목축제

뉴욕 플래싱 코리아타운에서 2013년 6월 15일 토요일에 뉴욕 최초로 ‘먹자골목’ 한식축제가 열렸다. 축제의 공식명칭은 ‘인터내셔널 먹자골목 아시안 페스티벌(The International Muk Ja Gol Mok Asian Festival)’으로 다양한 민족의 참여가 기대되었지만 처음으로 열린 축제라 아직은 다른 아시아 민족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하지만 다른 축제들과는 달리 ‘한식’이라는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 축제는 비록 처음 시도되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는 한인 축제들의 성공 가능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플래싱 ‘먹자골목’ 한식축제는 퀸즈한인회와 먹자골목 상인번영회가 공동으로 플래싱 41애비뉴와 149스트리트 일대에서 개최 되었다. 이 지역은 플래싱 다운타운에서는 약간 벗어난 지역으로서, 플래싱 다운타운의 한인 상가 중심지역이 발달하던 1990년대부터 소규모 한인 상권이 형성되었다가 밀려오는 중국인들때문에 2000년대 이후 다운타운의 한인 상가 중심지역이 붕괴되고 나서 새롭게 플래싱 한인타운의 중심지로 부상한 지역이다. 특히 이지역은 사방 두, 세블럭 사이에 약 30여 개의 한인 식당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일찍부터 ‘먹자골목’이란 명칭을 얻었다.

블럭파티 형식으로 치러진 이번 제1회 먹자골목 한식축제는 41애비뉴 선상에서 149스트리트 인근지역 한 블럭의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거리 중앙에 무대를 설치하고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개최되었다. 먹자골목의 모든 한국 식당과 한국식 카페 등이 모두 참가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한식당 11곳이 참여하는 민속장터에서는 불고기와 파전, 갈비, 꼬치구이 등 다양한 메뉴가 한인들과 타민족 관객들에게 소개되고 600명분의 초대형 비빔밥 행사가 마련돼 비빔밥 무료 시식의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다. 또 야외에 마련된 임시무대에서는 태권도 시범과 한국, 중국, 인도, 몽골 등 4개국 전통 무용공연이 있었으며, 노래자랑과 K-pop댄스 경연대회 등도 개최하여 타민족 주민들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축제를 방문하여 하루를 즐겼다. 그 외에 씨름대회와 옛장수, 뽕튀기 등의 추억의 볼거리 등도 제공되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 홍보책자와 부채 등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이번 먹자골목 한식축제는 특화된 먹자골목 축제를 통해 한식을 너 널리 알리자는 취지였는데 ‘먹자골목’이라는 용어가 미 주류사회와 타민족 커뮤니티에 점차 알려지고 있는 것이 주목되고 있다.<sup>64)</sup> 특히 최근 뉴욕타임스가 ‘먹자골목(Muk Ja Gol Mok)’이라는 용어는 ‘식당들이 있는 거리’라는 뜻이라고 소개하며<sup>65)</sup> 이날 행사에서 시연한 600명 분의 비빔밥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비비는 행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먹자골목 한식축제는 먹자골목 한인상권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3 블럭정도 떨어져 이민 상당히 발달된 노던 블러바드의 한인 상권을 연결시켜 이 지역의 전체 한인 상권을 널리 홍보하고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도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먹자골목 축제의 주최자인 먹자골목상인번영회의 김영환 회장은 “이번 먹자골목 축제에 중국계, 인도계 주민들도 많이 몰렸다.”며 “내년부터는 음력 5월5일이 단오인 만큼, 축제 기간과도 비슷해 내년 먹자골목 축제때 단오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다”<sup>66)</sup>고 하며 여러 아시안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여 각 커뮤니티별로 줄다리기 대회 같은 행사도 하면서 축제 이름에 맞는 아시안 축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64) NEWSis, 뉴욕 최초 ‘먹자골목’한식축제 열린다. 2013. 6. 12.

65) The New York Times, A Giant Bibimbap at Korean Food Festival, June. 17, 2013

66) 라디오 코리아, 2013년 7월 4일, <http://www.krbusa.com/news/view.asp?id=10414&pageno=>

<사진 9> 퀸즈한인회의 먹자골목축제 사진



출처: ①뉴스로, www.newsroh.com

<http://newsroh.com/technote7/board.php?board=m0604&sort=wdate&command=body&no=2605> ②[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813080](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813080)

③Chang W. Lee/The New York Times

<http://dinersjournal.blogs.nytimes.com/2013/06/17/a-giant-bibimbap-at-a-korean-food-festival/>

<지도 9> 퀸즈한인회 먹자골목축제 장소



원은 플러싱 한인 먹자골목. 빨간선은 '먹자골목축제' 개최 장소. 파란선은 먹자골목 인근에 발달한 노던 블러바드 한인상가 지역.

#### IV. 결론 : 뉴욕 한인사회의 축제의 문제점과 제언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한인사회는 50년이 안 되는 사이에 500여 명에서 공식적으로는 25만6천 명, 비공식적으로는 50만 명의 인구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 전체 인구의 2% 남짓한 정도 규모의 이민자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주류사회까지도 포괄하는 크고 작은 민족축제와 퍼레이드를 9개나 개최하고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특히 뉴욕 한인사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에 맨하탄 한복판 브로드웨이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했다는 것은 어느 소수민족도 흉내내기조차 힘든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아무리 뉴욕의 중국인들이 한인들보다 이민 역사가 오래 되고 인구면에서 몇 배나 된다고 해도 이러한 퍼레이드는 아직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축제와 퍼레이드를 개최하는데는 커뮤니티의 경제적인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능력만 갖고 있다고 모두 이러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로서 고난을 겪어내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커뮤니티의 단결된 힘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서 가능한 일이다. 이에 뉴욕한인청과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추석맛이 민속대잔치'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이같은 축제와 퍼레이드들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한인 커뮤니티가 대내적으로는 더욱 단결하는 기회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한인사회와 한국문화를 주류사회와 타민족들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한인사회가 주류사회 또는 타민족들과의 우호증진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며 또 우리 한인 2세들에게 '정

체성'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적은 않은 축제와 퍼레이드가 뉴욕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동일 지역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데 대해 그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며 발전적인 방향에서 제안을 모아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뉴욕 한인사회의 축제와 퍼레이드는 연중행사로서 그때그때 이제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치러져온 감이 없지 않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안의 각 지역별 한인사회가 서로 경쟁하다싶이 개최해온 감이 없지 않다. 그 과정에서 쓸데 없는 낭비나 축제와 퍼레이드의 개최의의와 목적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뉴욕 한인사회의 축제와 퍼레이드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필자가 뉴욕에서 28년간 살아오면서 이러한 축제와 퍼레이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뉴욕 한인사회의 축제와 퍼레이드들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뉴욕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축제와 맨하탄 퍼레이드들이 모두 9월과 10월 사이에 동시에 개최된다는 것이다. 뉴욕을 대표하는 뉴욕청과협회와 뉴저지한인회 그리고 롱아일랜드한인학부모 연합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축제와 뉴욕한인회가 주최하는 맨하탄 퍼레이드가 모두 9월과 10월 사이에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전체 한인사회에 큰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주일씩의 여유를 두고 연속적으로 개최되는 각 지역의 추석맞이 축제들은 한 곳에서만 열릴 경우 다른 지역의 한인들이 오고가는 문제가 있고, 또 주류사회와 타민족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비효과적인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큰 행사들을 1시간 거리 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개최된다는 것은 축제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인커뮤니티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축제가 3지역으로 분산되어서 정작 뉴욕 한인사회를 뉴욕 메트로폴리탄 주류사회에 크게 알리는데 효율적이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축제를 더 알차게 개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추석축제 개최를 놓고 뉴욕과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2011년의 추석맞이 잔치의 경우 당시 뉴욕한인청과협회는 뉴욕지역의 행사장소 사정으로 이전부터 해오던 장소들 어디에서도 할 수가 없게 되자, 뉴저지한인회가 개최하는 추석대축제와 같은 장소에서 일주일 앞서 열린 경우도 있었다.

어떻게 내용이 비슷한 대형 축제가 같은 장소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개최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정말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는 주최측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는 하더라도 한인 커뮤니티로서는 낭비가 아닐 수 없고 축제의 근본 취지마저 퇴색시켜 버리고 지역간 한인사회의 갈등만 조장한 경우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성격의 큰 축제를 3군데서 개최한다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가장 큰 추석잔치와 맨하탄 퍼레이드가 거의 같은 시기인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된다는 점이다. 행사의 성격과 개최 장소가 다르지만, 불과 1-2주 사이에 치러지는 이 행사들로 뉴욕 한인사회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몹시 분주할 뿐만 아니라 이 역시 한인사회의 역량을 분산시켜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퍼레이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대적인 퍼레이드 참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석맞이 민속대잔치와 같은 큰 행사를 치른 앞뒤로 또 많은 한인들을 동원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 결과는 부실한 내용으로 연결되어질 수 밖에 없다. 부실한 내용의 퍼레이드만큼 초라한 것은 없다. 뉴욕한인청과협회의 추석맞이 민속대잔치가 추석명절에 개최되어야 하는 시기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퍼레이드는 4-5월중인 봄쯤하면 좋을텐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추석맞이 축제든 퍼레이드든 마당잔치든 먹자골목축제든 모든 행사들의 콘텐츠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색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류바람이 불면서 어느 행사든 민족 문화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가 아니라 K-pop 아이돌 가수들을 한국에서 초청해오든지 아니면 한인 청소년들의 K-pop경연대회를 열어 무조건 인원동원에만 열을 올리는 주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민족축제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추석과 같은 민족축제라면 더욱 많고 다양한 민족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러한 콘텐츠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해서 한국의 민족문화를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K-pop 공연이나 경연대회는 별도로 해서 행사를 하면 두 축제가 모두 특색있게 치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행사의 프로그램들이 민족문화 콘텐츠와 한류 콘텐츠가 범벅이 되어서 축제로서 아무런 특징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각 축제와 퍼레이드마다 소개되는 한국음식도 갈비, 불고기 BBQ 등 천편일률적이어서 축제가 마치 행사에 부스를 사서 참가한 몇몇 식당들의 돈벌이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네 번째 문제점은 각 축제와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난 후에는 그 행사들에 대한 기록을 잘 수집하고 정리해 놓아서 다음해 행사때 더욱 발전적인 행사를 만드는데 활용하고 나아가 한인 이민역사 자료로 남겨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최하는 어느 단체도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정리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것 같다. 더구나 행사 전반에 걸친 회계보고는 이러한 축제와 퍼레이드들이 한인사회 전체의 행사인 만큼 전체 한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맨하탄 퍼레이드의 경우 주최는 뉴욕한인회가 하고 주관은 뉴욕한국일보가 하는 바람에 행사 초기부터 그 주최권을 놓고 다소 시비가 있었다.<sup>67)</sup> 이러한 시비는 행사후 양자간에 회계보고를 둘러싼 잡음으로 이어져 뜻있는 많은 한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왔다. 정확한 회계보고는 당연한 일임에도 그동안 행사를 주관한 뉴욕한국일보사 측은 이를 소홀히해온 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맨하탄 퍼레이드를 매년 주관해온 뉴욕한국일보는 행사후 항상 적자를 보았다고 하며 정확한 회계보고를 한인사회에 공표하지 않았는데, 제24대 한인회(이정화 회장)가 단독으로 주최한 1995년 9월 30일의 제 16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이전보다 내용이 알차고 새로운 것이 많았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한인회 단독으로 주최, 주관한 1996년 퍼레이드에서는 3만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sup>68)</sup>

제29대 한인회(회장 이경로) 임기인 2006년에 들어서자 뉴욕한인회와 뉴욕한국일보 사이에 ‘코리안 퍼레이드’주최, 주관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한인회 이사회는 2월 7일 코리안 퍼레이드와 야외 장터를 한인회가 단독으로 주최, 주관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이미 뉴욕시에 한국일보 이름으로 퍼레이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었다. 동포사회의 여론은 ‘그동안 한국일보가 결산내역을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 적자를 이유로 한인회에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인회가 주관권을 회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한국일보가 연고권을 갖고 잘하고 있는데 왜 말썹을 일으키느냐’는 둘로 의견이 나누어져 공방이 가열됐다. 그러던 5월 10일 한인회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종전처럼 한국일보에 주관권을 주었다. 한국일보가 결산을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결국 한인회 주관, 한국일보 주관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결국 29대 마지막 이사회에서 이경로 회장이 제안한 뉴욕한국일보 비난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73, 반대 14, 기권 19표로 통과시켰다.<sup>69)</sup>

뒤를 이은 제30대 한인회의 이세목 회장은 2007년 6월 6일에 코리안 퍼레이드에 대해 한인

67)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50년사, 97쪽

68) 위의 책, 118쪽

69) 위의 책, 140쪽

회가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29대 이경로 회장이 제기했던 논란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합의서 내용도 이경로 회장이 요구했던 선에서 크게 완화하여 ‘논란을 조기에 잠재웠다.’는 평과 ‘한인회의 입장을 위촉시킴으로써 퍼레이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켰다.’는 평을 함께 들었다. 그러나 30대 한인회의 코리안 퍼레이드는 이경로 회장이 유치해온 한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해보다는 다채롭게 진행됐다. 2007년 제27회 퍼레이드에는 서울에서 전통 어가행렬과 취타대가 왔고 2008년 제28회 퍼레이드에는 대형 거북선 모형이 선보였다.<sup>70)</sup>

코리안 퍼레이드를 둘러싼 두 기관간의 회계보고 문제만이 아니라 주최측 자체내에서도 회계보고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면 2011년 뉴저지저지한인회(회장 이현택)가 ‘제9회 추석맞이 대잔치’ 결산공고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행사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수석부회장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빚어진 협회내의 갈등이 한 예이다. 후원자 명단에 누락자가 있었는데도 결산공고가 나고 행사준비위원장의 개인 전화번호를 행사문의처로 게재한 것이 의혹을 사기도 했다.<sup>71)</sup>

다섯 번째 문제점은 축제와 퍼레이드는 행사주최자나 구경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뉴욕의 한인들 모두를 위한 행사다. 많은 한인들이 행사장을 찾지만 그냥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퍼레이드와 같은 행사는 많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준비와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축제와 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제들이다. 다시 말해 이제 이러한 행사들을 개최한지 30년 이상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복해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고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일종의 과시욕이나 경쟁심에서 행사를 추진해왔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일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한인축제 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행사들의 개최시기를 조정하고, 행사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행사비용 모금과 행사진행을 도와주며 나아가 행사 후 회계보고에 대한 감사까지 맡아 투명한 행사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가 갑자기 한꺼번에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각 축제와 퍼레이드 주최자들만이라도 모여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축제시기를 조정하고, 특색 있는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한정된 한인사회의 재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알찬 행사들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논의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3년에 퀸즈한인회와 먹자골목상인번영회가 주최한 ‘먹자골목 아시안축제’와 같이 크지 않은 축제이면서 첫 번째 행사였음에도 큰 성공을 거둔 것은 한국음식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관객을 끌 수 있는 강한 ‘주제’가 있었고, 갖가지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알찬 내용들로 관객들을 만족시켜주었고, 끝까지 투명하게 치러졌기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한다. ‘먹자골목 아시안 축제’는 2014년부터는 비슷한 시기에 있는 한국의 단오 명절과도 연계시키겠다고 하니 이제 본 축제가 명실상부하게 민족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해본다.

70) 뉴욕한인회, 뉴욕한인 50년사, 142-143쪽

71) 뉴욕한국일보, ‘추석 대잔치’결산공고 공방. 이진수 기자. 2011. 4. 16.

## 4.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과 축제

김진영(한국외대)

- 특 례 문 -

## 1. 중국 조선족사회와 축제/ 이영미·정부매

## 2. 미국의 코리아타운과 축제/ 배진숙·장안리